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Hotel · Gas · Business
Commercial Properties



이상규 부동산의
좋은이웃
Sang K. Yi Broker
206.612.8962 / Real4949@gmail.com



JP INSURANCE 박정연보험

자동차, 사업체 보험, 메디케어



Tacoma 253-228-5295
Federal Way 253-335-3895



주 패밀리 클리닉

· 소아진료 · 부인진료 · 보톡스·필러
· 성인진료 · 노인진료

Open Hours
Mon: 9am-6pm
Tue-Fri: 8am-6pm
Sat: 8am-1pm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플라자)

세상의 모든 소식 Haninsosik.com



KWA, 한국전쟁 발발 76주년 맞아 '전투 속 여성' 기렸다

'Threads of Courage' 첫 행사 개최...여성 참전용사 6명에게 표창
KWA, "여성 참전용사 공헌 기억하는 지속적인 전통으로 만들겠다"

대한부인회(KWA)가 지난달 25일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여성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첫 'Threads of Courage-Honoring Women in Combat'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표창을 받은 6명의 여성 참전용사들이 대한부인회 직원인 라슬로씨가 제작한 한정판 기념포스터를 받고 있는 모습.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Page-14>

THE ONE LOGIS, theonelogisllc.com

하나 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워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택배·이사·수출입운송·창고보관·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GOOD DR. CHIROPRACTIC

교통사고 · 디스크 · 만성요통 · 스포츠 상해 · 축만증

두통 · 척추관절 교정 및 전신 통증 치료전문

예약 전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Lynnwood, WA 98036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광고문의 206.779.5382

ONDemand KOREA TV Box

우리클리 Kooli

FREE

최대 합법 IPTV 한국 방송
지금 1년 서비스 구매하시면
\$100 Smart TV BOX 무료!
온디맨드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ODK BOX 단말기 증정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ODK BOX 서비스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는 \$100에 구매하거나, \$50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1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100 상당 전용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년 서비스 사용료 또한 240불에서 180불로 할인해드립니다.

ODK BOX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ODK BOX는 셋톱 박스로, 아무런 종류의 TV에 기기만 연결하면, 모든 ODK 콘텐츠를 큰화면에서 리모콘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ODK BOX만의 특별한 혜택

최신/구작 다시보기 + 실시간 + 100개 채널제공
무약정 / 단말기 무료렌탈
All in One(티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시청 가능)
온디맨드코리아 PREMIUM 멤버십 제공(동시 시청 최대 5명)

ODK BOX CARE +

친절한 한국어 기술지원, 설치 안내 및 상담, 단말기 무상교체, 안심케어

\$19⁹⁹/월

린우드 : 253-230-7928 (정관장 린우드) / 에드몬즈 : 425-773-3525 (Ace Life USA)
페더럴웨이 : 253-232-9277 (K-Beauty)

Best Choice REALTY

■ 주택

■ 비즈니스

■ 커머셜

■ 상담환영

살때도, 팔때도!



권미경 부동산

253.335.5301

Managing Broker MiMi Kwon

E: mimibestchoice@gmail.com

www.homesnap.com/Mikyoungh-Kwon

YouTube 권미경부동산

Facebook: Mimi Kwon
Instagram: Mimikwon

Auburn \$879,995



NEW Construction

6 beds / 3 bath · 3,011 sqft

신축 5베드 주택, 넓은 오픈 구조, 대형 아일랜드 주방, 여유 있는 침실과 프라이빗 프라이머리 스위트룸 갖춘 입주 준비 완료 매물, 소풍·공원·학교 주요 도로 접근성이 좋고, 조건 충족 시 \$15,000 바이어 보너스 혜택 제공.

Auburn \$865,000



NEW

4 beds / 3 bath · 2,907 sqft

게이트 커뮤니티에 위치한 원소유주 관리 첫 매물, 넓은 보너스룸, 고급 주방과 5피스 욕실의 프라이머리 스위트, 바닥재·카펫·외부 페인트·쿼츠 카운터탑·주요 가전, 공원, 산책로, 소풍, 식당, JBLM 인근의 편리한 입지

Seattle \$798,000



NEW

3 beds / 4 bath

시애틀 중심 입지의 호소한 2가 차고 타운홈, 3베드·3.25배스, 높은 천장, 자연광 가득한 오픈 구조, 가스 벽난로와 프라이빗 발코니를 갖춘 입주 준비 매물입니다. 다운타운, I-90, Lake Washington 접근성, 실거주형 주택

Lacey \$625,000



NEW

4 beds / 3 bath · 2,444 sqft

높은 천장과 풍부한 자연광, 오픈 구조, 하드우드 바닥, 고급 주방과 메인층 프라이머리 스위트룸을 갖춘 실거주형 매물입니다. 커버드 파티오와 팬스형 저관리 뒷마당, 오피스와 보너스룸까지 갖춰있어 I-5, 소풍, JBLM 접근성

Auburn \$659,000



Pending

3 beds / 3 bath · 1,930 sqft

레이크랜드 힐스 인기 커뮤니티의 조용한 cul-de-sac에 위치한 관리 상태 우수한 단독주택, 밝은 2층 엔트리, 오픈 구조, 고급 LVP 바닥, 리모델링된 욕실과 주방, 새 창문·에어컨·넓은 뒷마당까지 갖춘 입주 준비 완료 매물.

Tacoma \$469,000



Pending

3 beds / 2 bath · 1,512 sqft

높은 천장과 스카이라이트로 자연광이 풍부하며, 오픈 구조, 가스 벽난로, 넓은 주방 아일랜드, 새 바닥재와 최신 워터히터까지 갖춘 입주 준비 완료 매물, 지붕 있는 파티오, 펜스가 있는 뒷마당, JBLM 인근의 편리한 입지가 장점.

Bellevue \$1,099,950



NEW

3 beds / 3 bath

벨뷰 인기 커뮤니티의 첫 매물로 나온 프리미엄 코너 유닛 모델하우스이며, 고급 마감, 2가 차고와 우수 학교까지 갖춘 호소성 높은 럭셔리 타운홈.

Puyallup \$559,500



NEW

4 beds / 3 bath · 2,297 sqft

실거주와 투자에 모두 적합한 2,297sqft 단독주택, 대용 차고, 프라이빗 백야까지 갖춘 매물, 현재 월 \$2,800 렌트 수입, 2027년 1월 말까지 리스 유지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가능.

Spanaway \$549,000



New Price

4 beds / 3 bath · 2,473 sqft

2006년식 / 보너스룸 게이트커뮤니티 / 2026년쿼츠카운터탑 / 가전교체 최근내외관플 리모델링 / 가전일체포함 / 조용한주택가 / 공원산책로인접 / 미군기지, JBLM수부거리요충지

Auburn \$1,100,000



NEW

5 beds / 3 bath · 3,365 sqft

스타레이크에스테이트 / NorrisHomes리셀 / 막다른골목 / 0.5에이커대지 / 마운트레이니어 오픈컨셉주방 / 야외파티오 / 테라스안방 / 제트욕조 / 신축지붕 / 잔디교체(2026년) 온수기교체(2025년) / 비상발전기 / 3차고 / I-5·Hwy167인접 / 라이트레일역세권

Edmonds \$1,049,950



NEW

5 beds / 3 bath · 2,117 sqft

에드먼즈터키매물 / 2026년4월을수리 / 전면신축 / 임대수익최적화 신축지붕·데크 / 내외벽도색 / 바이닐바닥재 / 2차고·카포트 / 신축벽난로 가전일체포함 / 안방세탁기후업 / 명문학교 / 편리한교통·편의시설접근성

Tacoma \$5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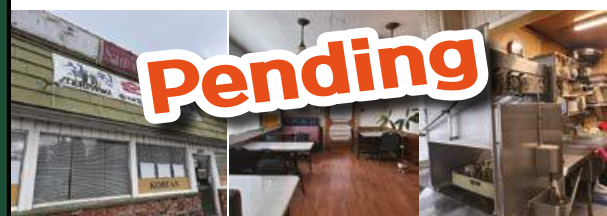


New Price

3 beds / 2 bath · 1,582 sqft

잘 관리된 3베드·2베스 램블러, 최신 지붕·주요 업그레이드 완료, 넓은 보너스룸, 큰 마당까지 갖춘 조용한 동네의 즉시 입주 가능

Lakewood \$600,000



Pending

레이크우드중심지 / 단독식당건물 / 18년성공정착 / 유동인구풍부 / 우수한가시성 주방·홀설비완비 / 워크인클러 / 요리장비·조리대·냉장고포함 / 테이블·의자완비 대형후드 / 한식·비베큐·카페·프랜차이즈적합 / 현상태그대로인수(가전·집기포함)

Auburn \$599,950



NEW

3 beds / 3 bath

오번모델하우스매물 / 최초분양1인소유 / 게이트커뮤니티 / 방3 욕실2.5 차고 오픈컨셉구조 / 그라니트카운터탑 / 아일랜드주방 / 스테인리스가전 / 단지내수영장 다용도로프트 / 대형세탁실 / 토마스제퍼슨고속도로권 / I-5·Hwy167·라이트레일인접



박 · 쉬나 합동법률사무소

PARK CHENAUR AND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지금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253-839-9440

www.parkchenaur.com



김벌리 윤

사무장

24년 이상 경력

253.344.7488



지나 김

사무장

16년 이상 경력

206.498.6040

오피스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무장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 개인상해

Car Accidents

Personal Injury

법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변호사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

2505 S 320th St. #100 Federal Way WA 98003
(320가 1-5 옆 검은색 유리빌딩 1층)


타코마 오피스:

3517 6th Ave. Tacoma, WA 98406

ICE 이민단속국 단속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 ✓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 ✓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을 열지 말고, 문 틈으로 레드카드를 보여주세요.
- ✓ 영장이 있어도 귀하의 이름과 주소, 판사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큰 소리로 또렷하게 말하세요.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귀하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있습니다.

- 이민국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 이민국 요원이 검문을 할 때 어떤 질문에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국 요원에게 귀하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예' 라고 답변을 한다면 침착하게 자리를 떠나십시오.
- 이 카드를 이민국 요원에게 주십시오. 만약 귀하가 집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 카드를 창문이나 문 아래로 밀어 넣어 전달하십시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These cards are available to citizens and noncitizens alike.

기억하세요! 4가지 권리 선언



침묵할 권리

"I wish to remain silent."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권리

"I want to speak to a lawyer."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영사 접견 권리

"I wish to contact Korean Consulate."

구금 시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 행사

"Am I free to go?"

공공장소 단속 시 가도 되는지 묻은 후 침착하게 이동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거짓말 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카드를 건네세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마세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임의로 서명하면 안됩니다.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하고, 시간 장소 상황을 기록

반드시 외워 들 정보

- 변호사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 시애틀총영사관 전화번호
- 206-441-1011~4**

레드카드 무료 다운로드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
seattlekcsc.org/know-your-rights



한국어 상담 전화 HOTLINE

425-449-0295
www.ice1004.org

KOREAN AMERICAN IMMIGRATION TASK FORCE



- Korean American Immigration Task Force에서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수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나 공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ICE 활동을 목격하시는 경우, 한인 이민정보팀에 연락하시고 지역 커뮤니티 미디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A: 병원 / 입원 보장, **파트 B:** 의료 보장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이라고도 하며 파트 A와 B를 대신 관리합니다.
다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장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플랜 - 파트 C 및 D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MAPD) 플랜은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민영 회사에서 메디케어 A,B 관리를 대행 합니다. 월보험료는 \$0 이거나 그 이상 일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 부담금 이후에는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는 합당한 의료비라면 100% 커버 됩니다. 다양한 수준의 보장을 포함한 플랜을 제공 할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의 의료보장, 의약품 코페이가 다를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A, B 를 1차보험으로 사용 할때보다 의사네트워크가 적을수 있습니다.

*어드벤처지 플랜 등록 대신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2차보험으로 선택 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등록 기간

초기 가입기간(65세 생일이 속한 3개월 전, 후)	Medicare 에 처음 가입하는경우 65세를기준으로 3개월 전, 후 7개월 동안 가입, 약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매월 평균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중 가입기간(10/15-12/7)	새로운 약보험,또는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에 가입 가능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오픈 가입 기간(1/1-3/31)	이미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에 있다면 다른 메디케어어드벤처지 플랜에 가입 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변경할 수 있고 약보험에 등록 이 가능합니다
특별 등록 기간	적격 생활 변화이후 2개월 동안 다른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퇴후 직장보험 상실, 이사 등, 현재플랜이 정부CMS 와 계약이 끝난경우

보험 등록시 유의할 점

주치의, 전문의, 병원, 약국에서 모두 계약이 되어 있는지, 현재 복용중인 약을 모두 커버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년중 총 지불 해야 하는 약 비용에 대하여 비교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신청

위 혜택을 받으시면 메디케어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듀얼 플랜에 등록자격이 되시며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일 경우 수입 기준이 더 높습니다.

조선용 보험 에서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홍명보, 어차피 관두려 했다

2번째 불명예 퇴진...월드컵 전부터 대회 결과 떠나 사퇴 카드 '만지작' 부임 때부터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불공정한 감독' 꼬리표 큰 부담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 뒤도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퇴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 또다시 비참한 결말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섰다가 조별리그에서 짐을 싣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진해서 물러났다. 홍 감독 측 복수 관계자는 이날 스포츠서울에 이렇게 말하면서 월드컵 결과를 떠나 이르게 사퇴 카드를 만졌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28일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앞설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팀 감독 자리는 내려놓지만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선수 시절 '아시아의 리베로'로 불리며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한 홍 감독은 지

도자로도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득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A대표팀을 이끌었다가 조별리그 탈락(1무2패)으로 첫 실패를 맛봤다. 이후 K리그1 울산HD의 사령탑으로 현장에 돌아와 2연패(2022~2023)를 이끌며 재기했다. 지난 2024년 8월 두 번째 A대표팀 지휘봉까지 잡은 그는 북중미 대회에서 월드컵 사령탑으로 명예회복을 그렸다. 믿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체코와 1차전에서 2-1 역전승한 데 이어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졌지만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조 최약체로 꼽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맞아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자력 32강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맥 빠진 경기력으로 일관하다가 0-1 충격패했다. 48개국 체제인 이번 대회는 각 조 3위를 차지한 12개국 중 상위 8개국이 와일드카드 32강에 합류한다. 내심 와일드카드 획득을 바랐는데, 이 역시 불운이 겹쳤다. 조별리그 최종일인 28일까지 사흘간 열린 9개 조 경기에서

3개의 경우의 수만 이뤄져도 32강 진출이 가능했으나 단 1개만 들어맞았다. 남아공전 졸전을 두고 다수 전문가는 전술 문제도 있으나 '팀 매니지먼트' 실패를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회 전 최대 난제로 꼽힌 스리백 전술 등은 오히려 본선 때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보였다. 자연스럽게 선수단 불화 등 내부 단속과 관련한 루머가 나왔는데, 홍 감독은 부인했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남아공전을 마친 뒤 '멕시코전 이후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건 있었다'고 말해 물음표를 남겼다.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공했다라도 사퇴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이유는 부임 때부터 자기 존재를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 현실에 대한 고민. 정몽규 회장 3선 기간 행정 난맥으로 지관받은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으로부터도 못매를 맞았다. 덩달아 홍 감독도 욕받이가 됐다. 이와 관련해 특정 감사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29일 멕시코 사포판 치바스 베르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 | 사포판=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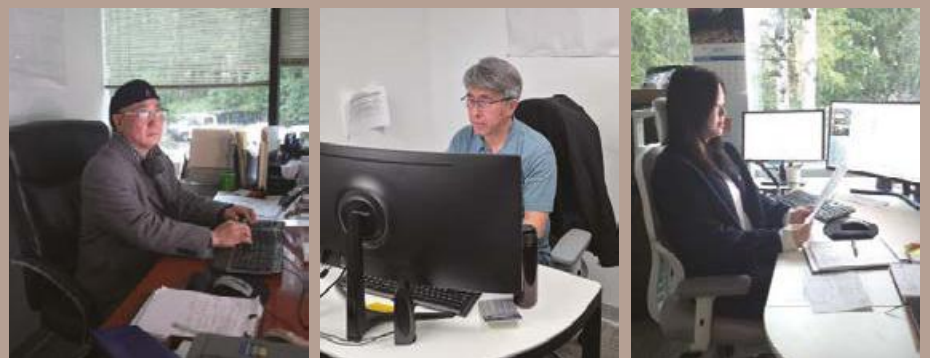
를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홍 감독이 절차 문제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한 건 없다고 발표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공정한 감독' 꼬리표가 지속해서 따라붙었다. A매치가 열릴 때마다 홍 감독과 협회를 겨냥해 야유가 나왔다. 홍 감독도, 선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신구 조화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해냈다. 여러 외풍이 따르지만 최

소 월드컵 본선까지는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버텼다. 다만 이후엔 대표팀이 새출발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다가 지난달 정몽규 회장이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나겠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홍 감독도 대회까지 소임을 다한 뒤 사퇴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다. 감독이 어려운 과정 속에 12년 전 상처는 더 벌어졌다. | 김용일 기자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나요? 저희는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 📌 Auto Accident Personal Injury (교통사고/개인 상해)**
- 📌 Immigration Law (이민법)**
- 📌 Speeding/DUI (속도위반/음주운전)**



**경력 많은 전문 변호사 2인이
교통사고·이민법을 집중 대응합니다.**

- 사고 피해,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 ▶ 최대 보상, 끝까지 책임집니다
 - ▶ 무료 상담 | 성공보수제
 - ▶ 승소 전까지 비용 부담 ZERO

Joseph Sim(Director) : 253-222-8888 after hours WWW.ACCSEATTLE.COM
Main 오피스: 206-414-2750 / 팩스: 888-844-7339 ADLG.FED@GMAIL.COM



오스카양 변호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 및 계약
- 비즈니스 법 (고용이슈 포함)
- 부동산 법
- 상속/자산 관련 법

SPECIAL OFFER
 광고 보신분에 한하여
 오피스 상담시 첫 상담은 특별가로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시 선불 30% Discount해드립니다

Q. 부동산 또는 사업 거래, 협상, 및 계약서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A. 저희는 고객들의 이런 갈등 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고 소송 여부에 더 쉽게 결정 하 실 수 있도록 첫 상담을 잡으세요.

Q. 직원으로써, 아님 고용주로서 고용 분쟁 이 있으신 가요?

A. 저희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토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미 커졌으면 당신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Q.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거나 채권자가 제대로 채무자의 권한을 존중 안해주나요?

A.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채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점들과 잘 못 아시고 계신 점들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아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불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가정법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무분쟁 이혼
- 이의 제기된 이혼 분쟁/소송
- 가족 비즈니스 및 다른 자산 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배우자 생활 보조비



변호사 사무실
 206) 979-7081 (한글 사무직원)
 360) 218-7273 (오피스)
 team3@esberrylaw.com

Factoria 13555 SE 36th St STE 100 Bellevue, WA 98006
Downtown 1400 112th Ave SE STE 100 Bellevue, WA 98004

다트머스 BA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경영대 MBA
 하버드 정치 행정대 MPP
 코넬 법대 JD





클래식포유가 한인생활상담소 성인 장애인 데이 프로그램 '오아시스'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벨뷰 시청 광장에서 연주 중인 클래식포유.



지난 6월 20일 올림피아에서 열린 한국전쟁 기념식에서 클래식포유가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빛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선율'

클래식포유, 한국전쟁 76주년인 25일 하루 동안 두 차례 공연 성공적으로 마쳐 오전엔 레이크 포레스트 파크 오아시스 · 오후엔 벨뷰 시티 플라자에서 연속 공연

한인 청소년 봉사 음악 앙상블 클래식포유(Classic4U)가 6·25 한국전쟁 76주년인 25일 하루 동안 두 차례의 지역 사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레이크 포레스트 파크의 장애인 데이 프로그램 현장에서의 실내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벨뷰 도심 한복판으로 이동해 노천 광장 공연을 펼쳤다. 두 무대 모두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클래식포유는 시애틀·벨뷰·이사와·레드먼드 지역 한인 고등학생 1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로, 2025년 6월 창단됐다. 플루트·바이올린·비올라·첼로로 이뤄진 이 앙상블은 창단 이후 노숙인 쉼터, 참전 용사 시설, 중독 회복 센터, 시니어 홈, 시애틀 칠드런스 병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꾸준히 찾아다니며 재능 기부 무대를 이어왔다.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워싱턴주 연방 하원의원 애덤 스미스로부터 지역사회 봉사 공로 표창을 받았으며, 벨뷰시 커뮤니티 프로그래밍 기금과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한국문화지원사업에서 지원금도 받은 바 있다.

◆ 오전 공연: 오아시스에서 애국가

에 전원 기립... "위 아 더 챔피언스"에 춤 물결

오전 공연은 레이크 포레스트 파크의 한인생활상담소 성인 장애인 데이 프로그램 '오아시스'에서 열렸다. 클래식포유가 이 시설을 찾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였다. 학생들은 에델바이스(Edelweiss),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오버 더 레인보우(Somewhere Over the Rainbow), 아리랑, 애국가 등 클래식과 팝, 한국 정서가 담긴 곡들을 고루 연주했다.

특히 애국가 연주 때는 참가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하게 감상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어 월드컵 분위기에 맞게 연주된 위 아 더 챔피언스(We Are the Champions)에서는 참가자들이 신나게 춤으로 화답하며 공연장이 순식간에 활기찬 분위기로 변했다. 양코르로 연주된 골든(Golden)에서도 참가자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공연 후에는 에델바이스와 오버 더 레인보우를 함께 부르는 싱어롱 시간이 이어졌고, 오아시스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프로그램

참가자·스태프·클래식포유 학생들이 함께 나누며 따뜻한 교류를 이어갔다.

◆ 오후 공연: 빛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선율... 벨뷰 도심 250명 발 묶었다

오후에는 벨뷰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벨뷰 시청 앞 시티 플라자에서 '벨뷰 커뮤니티 콘서트(Bellevue Community Concert)'를 펼쳤다. 클래식, 팝, 한국 음악 등 총 13곡을 연주하며 퇴근길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위로를 선사했다.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올웨이즈 위드 미(Always With Me), 골든, 위 아 더 챔피언스는 관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벨뷰 도심 한가운데 울려 퍼진 아리랑과 대한민국 애국가는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공연 중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악보가 날리거나 음악 스탠드가 넘어지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길을 지나던 시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손을 흔들고 응원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보탤었다. 이날 벨뷰 커뮤니티 콘서트에는 약 250명의 다양한 세대 시민들이 함께했다. 벨뷰 시청 관계자는 "역대 가장 젊은 앙상블 팀이 시티 플라자에서 공연을 펼



지난 5월 23일에는 '클래식포유가 공연을 통해 매칭 기부 포함 1,400달러 모금해 자선단체 '메리스 플레이스'에 전달하게 됐다.

쳤으며,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더욱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밝혔다.

◆ "거리에서 누구나 만나는 음악이 목표"... 울여름 봉사 콘서트 추가 예정 클래식포유는 창단 이후 구세군 운영 홈리스 쉼터(최대 240명 수용 규모), 참전 용사 시설, 요양원, 장애인 프로그램, 시애틀 칠드런스 병원 등에서 꾸준히 봉사 무대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시애틀 U-디스트릭트 파머스마켓에서 노숙 가정 지원 비영리단체 메리스 플레이스(Mary's Place)를 위한 자선 음악회 '뮤직 인 더 마켓(Music

in the Market)'을 열어 약 500명의 시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으며, 매칭 기부를 포함해 1,400달러가 모였다. 클래식포유 관계자는 "공연장을 찾아와야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더 가까이 전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클래식포유는 울여름 총 4회의 지역사회 봉사 콘서트를 추가로 준비 중이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Open 7 days a Week



벨뷰에서 가성비 최고의 정통 Pho

한 장소에서 25년 경력!
베트남 주방장의 정통의 맛!

I LOVE PHO

Vietnamese cuisine & teriyaki

T. 425-401-6400

3900 Factoria Blvd SE, Suite C Bellevue, WA 98006 <벨뷰 남대문 식품 옆>



이영이보험

- ✓ 곧 65세가 되십니까?
- ✓ 직장보험이 종료 되십니까?
- ✓ 타주에서 이사오셨거나 거주지가 바뀌셨습니까?
- ✓ 파트 D(약보험)으로 Extra Help를 받으십니까?
- ✓ Medicare와 Medicaid를 소지 하셨습니까?

*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페셜 가입기간에
Medicare Advantage(Part C)나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상담전문**

Licensed Insurance Agent
206.407.8478
206.250.2760
youngyi712@gmail.com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보유



페더럴웨이 “**건전한 복음** **새소망교회** **중심 교회**”



SUNDAY AM 11시 예배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 찬양과 기도
(예배 전 오후 6시에 저녁식사와 친목)



즐거운 찬양 공간



열린 예배 공간



성도님들 친교

“**마음을 채우는 예배**”

새소망교회는 1.5세 젊은 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



처음이어도 괜찮고, 다시 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다.
청년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젊은 목회자와 함께하는 열린 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청년들이 편하게 모이는 열린 교회**”
신앙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Contact Us

✉ lsohn77@yahoo.com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www.newhopecommunitycenter.com





허만 법률 그룹

3대를 이어온 변호사 가문

창립자 Karl Herrmann(1915-1997) : 전 상원의원 및 보험위원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교통사고 전문 허만 법률 그룹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창립70년이 넘게, 저희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일도 크게 보는 변호사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찰스허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시애틀 · 타코마

페이지 리 (Paige K. Lee)

Cell: 206.773.8180
Direct: 206.492.7722
Fax: 206.492.7723
E-mail: paige@hlg.lawyer

교통사고

- 각종 상해사고/ 목허리부상
- 부당한 죽음/ 보행자 사고
- 뇌손상 사고/ 낙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비행기 사고
- 제조물로 인한 상해



시애틀 · 타코마

줄리 황 (Julie Hwang)

Cell: 206.409.4611
Direct: 206.457.4200
Fax: 206.457.4201
E-mail: julie@hlg.lawyer

www.hlg.lawyer

시애틀 사무실

505 5th Ave. S, Suite 330 Seattle, WA 98104
T_206-625-9104
F_206-682-6710

타코마 사무실

1535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T_253-627-8142
F_253-627-1835

워싱턴주 세무부, 서비스 판매세 변경 따른 가산세 한시적 감면

ESSB 5814 시행 영향 사업체 대상...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워싱턴주 세무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DOR)가 서비스 판매세 제도 변경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가산세(Penalty)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무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ESSB 5814 시행으로 새롭게 소매 판매세 부과 대상이 된 서비스 업종의 사업체들이 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ESSB 5814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새롭게 소매 판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법령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제때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무부는 자발적인 세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미납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세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산세

만 면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납된 판매세와 사용세 원금은 물론 이에 따른 이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ESSB 5814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납 소매 판매세와 미납 사용세이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분이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ESSB 5814 시행으로 인해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사업체이며, 2027년 9월 30일까지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계약 가운데 일시적 판매

세 경감 대상이었던 계약은 해당 계약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 또는 2026년 4월 1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가산세 감면 신청은 워싱턴주 세무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는 신청에 앞서 세무부의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

고객지원센터(360-705-6705)로 전화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360-704-5649로 전화하거나 voluntarydisclosure@dor.wa.gov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워싱턴주 세무부는 주정부의 주요 세무 행정기관으로 약 60여 개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 반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광고접수

광고문의 206.779.5382

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인정... 트럼프 제한 행정명령 제동

- ▶ 대법원, 30일 출생시민권 광범위 인정 판결... 트럼프 행정명령 기각
- ▶ 불법체류·일시체류자 자녀 시민권 박탈 시도, 하급심 이어 대법원도 제동
- ▶ 연간 25만 명 이상 신생아 영향 받을 뻔... 영주권 신청자 자녀도 대상 포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화요일 출생시민권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인정하며, 미국에 불법 또는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오랜 해석과 최근의 연방법에 근거해,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판결했다.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 조치는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이미 제동이 걸렸으며, 미국 어느 곳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 트럼프 이례적 법정 출석에도... 보수·진보 대법관 모두 의문 제기 지난 4월 변론 당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 출석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

은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또 다른 시련대가 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체로 강력한 대통령 권한론에 무게를 두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으나, 예외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향해 노골적인 개인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뉴햄프셔주 하급심에서 시민권 제한 조치를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 집권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이민 단속 정책의 핵심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첫날 서명한 것으로,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출생시민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정책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된 적 없는 비상대권법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전 세계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월 말 관세 관련 판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응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하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출생시민권 사건에서도 패소를 예상한 듯,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명칭한 판사와 대법관들", 그리고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안겨주기 위해 미국을 찾는 중국 등지의 부유한 임신부들을 비판한 바 있다. ◆ 수정헌법 14조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 1898년 판례도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외국 외교관 자녀와 외국 점령군 소생 자녀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광범위한 통념을 뒤엎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정헌법 14조는 본래 흑인, 특히 과거 노예였던 이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



[사진=신문사DB]

만, 시민권 조항 자체는 더 폭넓게 규정돼 있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무효화했으며, 이 같은 판단은 1898년 대법원의 왕킴마크 판결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통념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구연구소(Population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25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로 불법 이민에 초점을 맞춰 발언과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번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 등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이상규

부동산의 좋은 이웃

Sang K. Yi Broker

206.612.8962 / Real4949@gmail.com

Hotel·Gas·Business Commercial Properties

HOTEL, MOTEL

- ▶ Lakewood Guestrooms: 54+ 1 Room
- ▶ Asking \$5,000,000
- ▶ Guestrooms: 120 Asking \$28,000,000

Commercial 상가

- ▶ Tacoma 9 Unites Asking \$3,200,000 5.75 Cap.
- ▶ Shelton 4Unites Asking \$1,430,000 5.7 Cap.
- ▶ South 29Unites Asking \$11,000,000 6 Cap.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앗!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단, **1회!**
10/17 ~10/27

도쿄 신칸센부터 설악산 비경까지!

고국/일본 핵심 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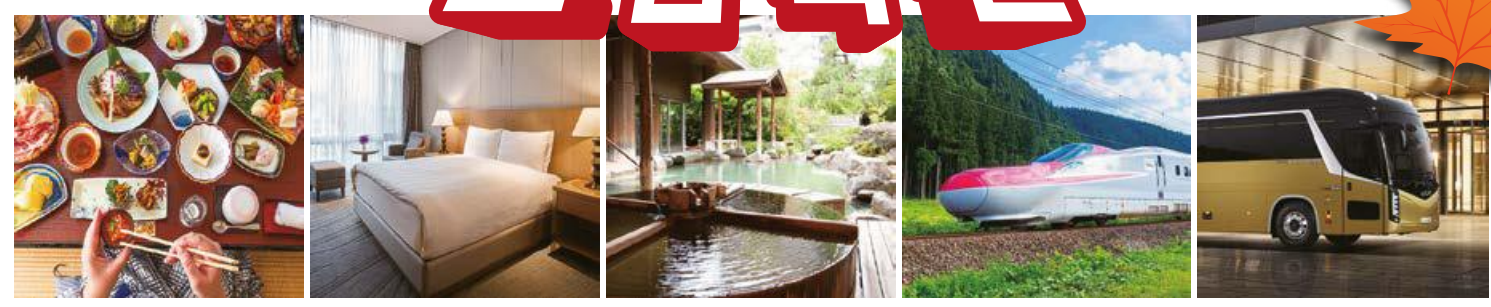
10박 11일

\$2,999 + 항공

- 서울
- 설악산
- 평창/강릉
- 안동
- 울산/경주
- 부산
- 오사카/고베
- 교토/나라
- 하코네
- 도쿄

- 드림단독
- 개별리턴 가능
- 전국별미
- 일본미식
- 온천호텔

드림특전



- ★ 금강산도 식후경! 지역별 특식 완전 포함
- ★ 전 일정 엄선된 4~5성급 호텔 숙박
- ★ 일본의 정취를 느끼는 특급 '온천 호텔' 포함
- ★ 도쿄-오사카 구간 '신칸센' 탑승
- ★ VIP 대형버스로 편안한 고국여행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명래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은지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초청 연사인 셸리 윌리스 예비역 미 육군 상사가 'Threads of Courage'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KWA, 한국전쟁 발발 76주년 맞아 '전투 속 여성' 기렸다

'Threads of Courage' 첫 행사 개최...여성 참전용사 6명에게 표창
KWA, "여성 참전용사 공헌 기억하는 지속적인 전통으로 만들겠다"

대한부인회(KWA)가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여성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첫 'Threads of Courage-Honoring Women in Combat'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클로버파크 하이스쿨 JROTC의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했다. ISG 라울 뮤노즈 준위가 이끄는 생도 미요민 클라인, 에벌린 스미스, 그레이스 페어크로스, 안젤라 산체스가 성조기를 입장시켰고, 모리스 잇슨이 국가를 연주했다. 이어 리아 무어 목사가 축복기도를 맡았다.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제복을 입은 남성과 여성들이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했다"며 "그들의 희생은 대한민국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KWA가 자유의 가치를 잘 알았던 한인 이민 여성들에 의해 시작됐다고 소개하며 "KWA는 이제 워싱턴주 16개 지역에서 약 1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들이 세운 단체인 KWA가 오늘 여성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명래 이사장은 "자유는 매일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그 자유에는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고 말

했다. 그는 "한국전쟁으로 3만6,000명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많은 한국 민간인들도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그 희생은 전쟁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강한 민주주의의 국가이자 미국의 가까운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KWA는 국가를 섬긴 이들이 지켜낸 지역사회를 계속 섬기겠다"고 말했다.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서은지 총영사는 축사에서 "미국과 21개 유엔 참전국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한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며 "여성 참전용사들은 자유를 지키는 일에는 성별이 없고 리더십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분 같은 선구자들이 문을 열어 주었기에 뒤따르는 많은 여성들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초청 연사인 셸리 윌리스 예비역 미 육군 상사는 'Threads of Courage'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참석한 여성 참전용사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한 뒤 "이 여성들이 바로 하나의 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윌리스 상사는 "실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다른 실과 엮이면 강하고

오래가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며 "여성 참전용사들의 실은 공유된 경험, 단련된 힘, 세대와 군종을 넘어 이어지는 관점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 참전용사들은 두 번의 싸움을 해왔다. 하나는 군복을 입고 싸운 전투이고, 다른 하나는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었고"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독립전쟁의 데보라 샘슨, 남북전쟁 이후 미 육군에 입대한 캐시 윌리엄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6888대대, 미군 최초 여성 4성 장군 앤 E 던우드, 여성 레인지 스쿨 졸업자이자 첫 여성 보병 장교 중 한 명인 크리스틴 그리스트 등을 언급하며 "여성들은 군 역사 주변부에 있었던 적이 없다. 언제나 그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윌리스 상사는 자신의 군 복무 경험도 나눴다. 그는 17세에 입대를 결심했고 18세가 되자마자 군에 들어가 24년 10개월 11일 동안 복무했다고 소개했다. 보스니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한 그는 "군 복무는 내 인생을 바꾸었다"며 "군 복무가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이 되게 하지 말라. 제복을 벗은 뒤에도 봉사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자신을 믿으라. 힘든 일도 해낼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여성 참전용사는 6명



박명래 이사장(오른쪽)과 대한부인회 직원들이 수상자들에게 축하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다. 캐스린 M 롱 상사는 미 육군 군사정보 및 지리공간정보 전문가로 약 20년간 복무했으며 이라크 자유 작전 참전 경력을 가진 현역 군인이다. 로라 네퓨트 원사는 미 공군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비행 관련 교관, 평가관, 선임 부사관 자문관으로 활동했다. 린다 펠프스 병장은 미 육군 전투 의무병으로 쿠웨이트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파병돼 장병들을 돌봤다. 사우디 맥비아 원사는 미 공군과 공군 예비군에서 41년 이상 복무하며 항공의무후송 분야에서 부상 장병들을 지원했다. 윌리 윌리스 원사는 미 육군에서 25년간 복무한 뒤 워싱턴주 여성 참전용사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테미 페들트 대위는 전투공병 부대의 초기 여성 장교 중 한 명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으며 브론즈 스타 메달과 컴뱃 액션 훈장을 받은 인물로 소개됐다.

KWA는 수상자들에게 'Threads of Courage' 기념 코인과 포스터를 전달했다.

안사라 사무총장은 "챌린지 코인은 군에서 소속감, 성취, 공유된 경험, 존경을 상징해 왔다"며 "오늘의 코인이 역사적인 첫 행사를 기억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게도 기념 코인이 제공됐다.

이어 Quilts of Valor Foundation 마운트 레이니어 지부가 수상자들에게 손수 만든 퀼트를 증정했다. 지부 관계자는 "퀼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나라가 전하는 위로와 치유, 사랑의 표현"이라며 "전쟁의 영향을 받은 군인과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JROTC 생도들의 기수 퇴장으로 마무리됐다. 안사라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야기와 희생, 그리고 참전용사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라며 "KWA는 이번 행사를 여성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지속적인 전통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재영 기자**



대한부인회 직원인 리솔로씨가 제작한 한정판 기념포스터가 표창을 받은 6명의 여성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됐다.



Quilts of Valor Foundation 마운트 레이니어 지부 임원들이 캐스린 M 롱 상사에게 손수 만든 퀼트를 입혀주고 있다.



클로버파크 하이스쿨 JROTC 기수단. 오른쪽은 라울 뮤노즈 준위.



권정종합보험 메디케어



대표 권 정

-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클레임 서비스
-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 급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65세 다가오십니까?

귀하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올해 65세(1961년생)가 되시는 분들
- 직장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
-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 거주지가 바뀐 분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



SBI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TACOMA OFFICE

9122 SO TACOMA WAY #108 LAKEWOOD, WA 98499
Fax. 253.473.1214
jeonghee@seattlebesti.com

Tel. 253.472.3977

LYNNWOOD OFFICE

18623 HWY 99 SUITE #240 LYNNWOOD, WA 98037
Fax. 425.741.3300
johnkwon@seattlebesti.com

Tel. 425.741.3600



2026 KO-AM 편성표 7월 06일 - 7월 12일

		월 (7/06)	화 (7/07)	수 (7/08)	목 (7/09)	금 (7/10)	토 (7/11)	일 (7/12)						
5		KTV 뉴스					KTV 뉴스			5				
6		김학중 목사	종교				종교	형제 교회		6				
7		KTV 뉴스					KTV 뉴스			7				
8		KO-AM 뉴스					기분 좋은 날	어영차 바다야		8				
9	40	명성교회	한사랑교회	형제교회	타코마제일침례 교회	명성교회	나 혼자 산다 (재)	기분 좋은 날 (재)		9				
10	20	첫 번째 남자					라디오 스타 (재)	타코마 침례교회		10				
11		오늘 아침					엄마를 부탁해 (재)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		11				
12		최고의 산			MBC 드라마 (재)	실화탐사대	비디오 여행		12					
13		어영차 바다야	결혼 지옥 (재)	소라와 진경 (재)	놀면 뭐하니 (재)	전지적 참견 시점 (재)	네트워크 특선	엄마를 부탁해		13				
14		MBC 뉴스 투데이				KTV 뉴스	구해줘 홈즈	KTV 뉴스		14				
15		KTV 뉴스					MBC 뉴스 투데이	놀면 뭐하니 (재)		15				
16		탐나는 TV	엄마를 부탁해	다큐 프라이م	다정다감	네트워크 특선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6				
17		MBC 뉴스 투데이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7				
18		MBC 오늘 저녁					놀면 뭐하니	최고의 산		18				
19		첫 번째 남자 (재)					MBC 드라마	소라와 진경		19				
20		KO-AM 뉴스					MBC 드라마	소라와 진경		20				
21		결혼 지옥	MBC 드라마 (재)	시골마을 이장우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MBC 뉴스	MBC 뉴스		21				
22		결혼 지옥	MBC 드라마 (재)	라디오 스타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전지적 참견 시점	탐나는 TV		22				
23		KTV 뉴스					기분 좋은 날	PD 수첩	기분 좋은 날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기분 좋은 날		23
24		기분 좋은 날					오늘 아침			24				
1		오늘 아침										1		
2											2			
3											3			
4											4			

* 방송국 사정에 따라 긴급 또는 특별 편성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뉴스, 보도	교양, 다큐	드라마	오락	특집방송	종교
--------	--------	-----	----	------	----

660석 만석에 '앵콜 또 앵콜'

워싱턴 K 앙상블, 지난달 28일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서 정기연주회 개최 오페라의 유령 서곡부터 군가 '전선을 간다'까지...장르 넘나드는 17곡 열연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한인 합창 예술 단체 워싱턴 K 앙상블(Washington K-Ensemble · WKE · 음악감독 김범수)이 지난달 28일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PAEC)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창단 15주년과 새 이름으로의 출발을 화려하게 알렸다.

1층과 2층을 합쳐 660석 규모의 공연장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앵콜 요청이 이어졌고, 합창단은 추가 공연으로 응대했다. 마지막 곡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관객들로 공연장은 한동안 열기로 가득했다.

◆ 클래식 · 성가를 넘나드는 1부... '할렐루야'가 관객의 가슴을 열다
이날 연주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Begin Again, Dream Anew)'을 주제로 2부 17곡으로 구성됐다. 1부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서곡으로 막을 열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이어 '찬양의 교향악(Symphony of Praise)'에서 솔로를 맡은 테너 조요셉(Joseph Cho), '만유의 주재(Beautiful Savior)'의 정춘길(Paul Jeong), 라틴어로 불린 '거룩하시다(Sanctus)'의 권수현(Suhyun Kwon)까지 이어지며 1부는 깊은 경건함 속으로 청중을 이끌었다. 1부의 감동을 완성한 것은 레너드 코언(Leonard Cohen)의 '할렐루야(Hallelujah)'였다. 유미진(Chloe Yoo)

과 최진혁(Chad Choi)이 솔로로 나서 합창단과 함께 풀어낸 이 곡은 공연장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1984년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는 세상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이 곡은, 코언이 5년에 걸쳐 80편 이상의 초고를 쓰고 고치며 완성한 노래다. 1994년 제프 버클리(Jeff Buckley)의 커버 버전이 나온 뒤 코언 본인조차 "내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극찬했고, 2001년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Shrek)의 삽입곡으로 쓰이며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밥 딜런(Bob Dylan)부터 본 조비(Bon Jovi)까지 300개 이상의 커버 버전이 존재하는 이 곡은, 성경 속 다윗 왕과 삼손의 이야기를 빌려 인간의 사랑과 고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향해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담아낸 세기의 명곡이다. '하나님의 사랑(Love of God)',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여(Count Your Blessings)', '주의 보혈(There's Power in the Blood)'이 그 뒤를 이으며 1부의 막이 내렸다.

◆ 봄의 소리 왈츠로 활짝 열린 2부... 한국 서정의 물결
인터미션 직후 소프라노 권수현이 선보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의 '봄의 소리 왈츠(Fruhlingsstimmen, Voices of Spring, Op. 410)'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봄날의 설렘으로 바꿔놓았다. '왈츠의 황제'라 불리는 슈트라우스 2세가 188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연회장에서 즉흥으로 작곡해 탄생한 이 곡은, 꽃



워싱턴 K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모습.

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날의 풍경을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그려낸 만년의 걸작이다. 피아니스트 안선(Sun Ahn Gamble)의 반주와 함께 권수현의 소프라노가 화사하게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탄성을 이끌어냈다.

이어 남성 합창단의 '행복을 주는 사람'과 여성 합창단의 '그리움만 쌓이네',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못잊어',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을 담은 '첫사랑', 이범준 편곡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까지 한국 현대 가곡의 서정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 6.25 보훈의 달... 군가 '전선을 간다'로 숙연한 감동
정규 공연의 마지막 두 곡은 6월 한국 보훈의 달과 6.25전쟁 76주년에 맞춘 특별한 선곡이었다. 마크 헤이즈(Mark Hayes) 편곡의 '여리고의 전쟁(Battle of Jericho)'에 이어, 이해심 편곡의 대한민국 국군 군가 '전선을 간다'가 울려 퍼지며 공연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휘자 김범수 감독은 무대에서 "며칠 전 6월25일이 6.25전쟁 76주년이었다"며



워싱턴 K 앙상블 김범수 지휘자가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다.

"합창단 역사상 군가를 부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군가로 6.25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소프라노 권수현의 솔로로 시작된 이 곡은 눈 덮인 전선을 행군하며 젊은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담아내며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자아냈다. 지휘자는 "남자 단원들 중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자 단원들이 특전사 대원처럼 부른다"는 말로 긴장된 분위기를 유머로 풀기도 했다.

◆ 앵콜 또 앵콜... '연안부두'와 'I Will Follow Him'으로 대미
정규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박수와 앵콜 요청이 멈추지 않았다. 합창단이 앵콜로 꺼내든 곡은 이범준 편곡의 '연안부두'였다. 지난해 공연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불렀던 합창단이 스스로 약속한 대로 올해는 인천 연안부두를 찾은 것이다.

1979년 김트리오가 발표한 이 노래는 인천 연안부두를 즐겨 찾았던 작사가 조운파가 그곳에서 목격한 이별하는 사

람, 해후하는 사람,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 만든 곡이다. 트로트와 록, 펑크 리듬을 결합한 세련된 편곡으로 발표 이후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들의 응원가로 자리 잡으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이 곡은, 이날 공연장의 한인 동포들에게 고국의 부두 위 정취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마지막 앵콜곡인 영화 '시스터 액트(Sister Act)'의 'I Will Follow Him'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지만, 공연장을 떠나는 관객들의 발걸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이날 무대에는 단원 44명 외에도 시애틀 지역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함께했다. 워싱턴 K 앙상블은 킹카운티 문화예술재단 4Culture의 주요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ce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BUSINESS FOR SALE BY OWNER

SELLER 와 BUYER의 직거래 광고입니다.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300,000 연매상: \$400,000 렌트: \$5,260 지역: 페더럴웨이 문의: 253-334-9042</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400,000 연매상: \$500,000 렌트: \$6,700 지역: W. Seattle 문의: 206-313-1981</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Dry Cleaner</p> <p>매매가: \$320,000 연매상: \$420,000 렌트: \$4,500 지역: 커크랜드 문의: 425-647-9005</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Teriyaki</p> <p>매매가: \$150,000 월매상: \$35,000 렌트: \$4,250 지역: Monroe 문의: 425-273-4357</p>
---	--	--	--

사업체 매매 무료광고 문의: 206.229.6229 / E-mail:4989seattle@gmail.com

KW COMMERCIAL

TOP 10%
REAL ESTATE PRODUCER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이한나 부동산

주택 / 사업체 / 상업용 상가임대



MULTIPLE LISTING SERVICE
MLS



BizBuySell



Hanna Lee

Seller 특전

사업체 매매를 원하십니까?
MLS/CBA/BizBuySell
동시광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422.4328

hannalee@kw.com
hannaleerealestate.kw.com

식당전문



이원규 부동산

253.941.4989 | 206.229.6229
wonlee@metrospi.com

Teriyaki

1. \$140,000	일매상 \$1,600	렌트 \$4,100
P \$180,000	일매상 \$1,800	렌트 \$2,700
3. \$130,000	일매상 \$1,200	렌트 \$5,100
4. \$250,000	일매상 \$2,200	렌트 \$3,800
5. \$500,000	일매상 \$3,500	렌트 \$8,500
P \$150,000	일매상 \$1,700	렌트 \$7,500
P \$180,000	일매상 \$1,500	렌트 \$2,750

Japanese Restaurant

P \$650,000	일매상 \$4,500	렌트 \$10,500
2. \$180,000	일매상 \$1,700	렌트 \$4,200
3. \$160,000	일매상 \$1,500	렌트 \$1,600
4. \$300,000	일매상 \$2,000	렌트 \$8,000

Korean Restaurant

1. \$160,000	일매상 \$2,000	렌트 \$3,200
P \$550,000	일매상 \$4,000	렌트 \$8,500
S \$250,000	건평 3,000sf	렌트 \$11,500
4. \$200,000	일매상 \$1,500	렌트 \$3,400
5. \$450,000	일매상 \$4,000	렌트 \$4,500

Restaurant Lease 식당 렌트

1. 건평 1,500sf	렌트 \$5,300	Seattle
2. 건평 2,300sf	렌트 \$5,200	North Bend
3. 건평 1,400sf	렌트 \$6,800	Covington
4. 건평 3,800sf	렌트 \$15,500	Maple Valley
5. 건평 3,400sf	렌트 \$9,300	Tacoma
6. 건평 5,200sf	렌트 \$10,500	Puyallup
7. 건평 6,000sf	렌트 \$15,000	Auburn
8. 건평 4,200sf	렌트 \$8,750	Everett

연방정부, 비영리단체 보안 강화 지원 확대

FEMA, 시설당 최대 20만 달러 · 기관당 최대 60만 달러 지원 교회 · 한인회 등 종교시설과 비영리단체 대상...7월 10일 마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비영리단체와 종교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26 회계연도 비영리단체 보안 지원 프로그램(FY2026 Nonprofit Security Grant Program · NSGP)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종교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인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들도 이번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SGP는 테러 등 각종

보안 위협에 대비해 비영리단체의 시설 보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는 시설(주소)당 최대 20만 달러, 기관당 최대 3개 시설, 총 6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IRS 501(c)(3)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가운데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다. 한인사회에서는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한인회, 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교육기관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은 CCTV와 영상감시 시스템, 출입통제(Access Control) 시스템, 침입경보와 비상경보(Panic Button), 보안문 및 방탄필름 설치, 외부 조명과 울타리(Fencing) 설치, 보안 취약점 평가(Security Assessment),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보안교육 등 시설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비영리단체에 평가 점수 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또한 시설당 최대 20만 달러, 기관당 최대 3개 시설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단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FEMA는 IRS 501(c)(3) 등록만으로 지원 대상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관의 보안 위험도와 시설의 취약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7월 10일이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FEMA 비영리단체 보안 지원 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최근 종교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한인 교회와 비영리단체들도 이번 연방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일대 ICE 단속 거세져... 주말 새 최소 12명 체포

- ▶ 켄트 · 벨뷰 · 레이크우드 · 린우드 등 7개 지역서 체포 보고
- ▶ 아버지의 날 장보고 귀가하던 가장, ICE에 체포돼 가족과 생이별
- ▶ 한인 밀집지역도 단속 대상... 전문가들 "신분서류 관리 · 권리 숙지 필요"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29일) 오전까지 시애틀 지역 곳곳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이어지며 최소 12명이 체포된 것으로 지역 추적단체와 목격자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킹5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포가 보고된 지역은 켄트, 벨뷰, 레이크우드, 린우드, 어번, 퍼시픽, 셸턴 등으로, 켄트에서는 29일 오전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ICE 요원들이 한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이 촬영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 아버지의 날, 끝내 함께하지 못한 가장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아버지의 날인 지난 21일 레이크우드에서 발생했다. 호세 로블레스 갈레아나는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ICE 수사관에 체포됐다. 딸 카밀라 버뮤데스는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바비큐를 하며 아버지의 날을

보내길 원했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했다"며 "다음 날 타코마 구급시설에서 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20여 년 전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왔으며,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헌신적인 가장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매주 자신을 워싱턴대학(UW) 영재 프로그램까지 직접 데려

다주는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말했다. ◆ 벨뷰 월마트부터 어번 · 켄트까지... 잇따른 단속 지역 시민단체 ICE아웃(ICEOut.org)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7일 벨뷰의 한 월마트, 28일 퍼시픽과 셸턴, 29일 린우드 · 어번 · 켄트 등에서 잇따라 보고됐다.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이번 단속과 관련한 대규모 작전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 올해 1~3월에만 750건 체포... 단속 확대 우려 커져 한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1~3월 워싱턴주에서는 약 750건의 이민 단속 체포가 이뤄졌다. 이후 공식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연방정부

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단속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벨뷰, 켄트, 린우드, 어번 등에서도 잇따라 보고된 만큼 한인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을 포함해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경우에도 평소 신분 관련 서류를 잘 관리하고, 단속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는 등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 ~ 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아내에게 사랑받는 집수리, 주방부터 바꾸세요. 주방이 바뀌면 집이 달라보입니다.

선착순10분
무료상담
+3D디자인
제안서

-  매일 가장 많이 쓰는 공간
-  집의 첫인상을 바꾸는 공간
-  수납과 동선이 생활의 편함을 좌우
-  하나만 바뀌어도 집 분위기가 달라짐

새집·집수리·주방
종합건축회사



206-512-0959

BEFORE



AFTER



선착순 10 가정 상판 업그레이드 (\$1000)

디자인과 가격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

비가 잠시 멈춘 지금, 지붕 청소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워싱턴주는 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지금, 지붕과 홈통을 먼저 점검하세요.



Before: 이끼 낀 지붕, 막힌 홈통, 낙엽과 먼지로 답답한 물길

After: 깨끗한 지붕, 시원하게 흐르는 빗물,
비 오기 전 안심 관리

왜 지금 해야 할까요?

1 이끼와 낙엽 제거



이끼, 낙엽, 먼지가 물길을 막으면 비가 올 때 누수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홈통 막힘 예방



홈통이 막히면 빗물이 벽, 처마, 기초 쪽으로 넘쳐 집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비 오기 전 점검



마른 날씨에는 지붕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4 큰 공사 전 작은 관리



지붕 교체는 부담스럽지만, 청소와 점검은 집을 지키는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지붕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붕 위 문제는 바로 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장 얼룩, 처마 물냄침, 벽면 오염, 홈통 막힘은 작은 관리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은 지붕을 청소하고, 홈통을 비우고, 이끼와 낙엽을 정리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집 전체 수리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지붕부터 관리하세요. 집을 지키는 일은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 시즌이 오기 전
지붕 청소와 홈통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206-512-0959



WE BUILD DREAM
**ALABASTER
& PRAUS**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만성 질환 수술

더이상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치료 하세요!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휴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치질
(1-3일)

자궁
(2-6일)

유방
(2-5일)

척추
(1-5일)

편도선
(1-5일)

담낭용종(담석)
(2-4일)

요실금
(2-4일)

갑상선
(3-4일)

관절(어깨, 무릎, 고관절등)
(3-14일)

암수술
(5-14일)

탈장
(2-3일)

난소
(2-3일)

전립선
(1-14일)

하지정맥류
(1-3일)

※ ()입원기간 표기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서울부민병원(가양역)

강남병원(기흥역)

H+양지병원(신림역)

세란병원(독립문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휴람의료네트워크병원은 휴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 |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광역시에틀한인회, 에버렛시와 지역경제 협력 강화 논의

김원준 회장 · 샘 심 이사장, 지난달 25일 에버렛시청서 마이크 풍 부시장 면담 에버렛시와 스노호미시 카운티 경제 발전과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 나뉨

광역시에틀한인회(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가 에버렛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광역시에틀한인회 김원준 회장과 샘 심(Sam Sim) 이사장은 지난 6월 25일 에버렛시청에서 마이크 풍(Mike Fong) 에버렛시 부시장을 만나 에버렛시와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경제 발전과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서는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인 보잉(Boeing)과 관련 협력업체를 비롯해 에버렛항(Port of Everett)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산업, 첨단 제조업, 관광 및 국제교류 등 에버렛시의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

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투자 유치, 교육 및 인재 양성, 문화교류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광역시에틀한인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버렛시 간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원준 회장은 "광역시에틀한인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버렛시를 연결하는 민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다양한 국제교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풍 부시장도 "에버렛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민간단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역시에틀한인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역시에틀한인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에버렛시 및 스노호미시 카운티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 문화·교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준 회장(왼쪽)과 샘 심 이사장(오른쪽)이 마이크 풍 부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 똑똑해진 챗GPT 온다...오픈AI, 'GPT-5.6' 깜짝 공개

- ▶ 플래그십 '솔' 등 3종 모델...코딩·생물학·보안 능력 향상
- ▶ 미 정부 협의 거쳐 일부 파트너에 우선 공개...수주 내 정식 출시

오픈AI가 한층 더 강력해진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GPT-5.6'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다. 오픈AI는 26일(현지시간) 플래그십 모델 '솔'(Sol), 균형 잡힌 성능의 '테라'(Terra), 빠르고 저렴한 '루나'(Luna)로 구성된 GPT-5.6 모델 시리즈의 제한적 사전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솔'은 코딩, 생물학, 사이버 보안 등 복잡한 작업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특히 코딩 위

크플로 테스트 '터미널-벤치 2.1'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유전체학 분석 평가 '진벤치 v1'에서는 이전 모델인 GPT-5.5 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더 강력한 결과를 도출했다. 오픈AI는 이번 모델에 역대 가장 강력한 안전 장치를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자체 평가 결과 '솔' 모델은 '사이버 위협 임계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I가 버그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자율적으로 완전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지는 못

한다는 의미다. 이번 출시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픈AI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소수 파트너 그룹에 먼저 제한적으로 공개한 뒤 수 주 내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모델 시리즈는 성능에 따라 가격이 책정됐다. 100만 토큰(AI가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당 가격은 솔이 입력 5달러·출력 30달러, 테라가 입력 2.5달러·출력 15달러, 루나가 입력 1달러·출력 6달러다. 오픈AI



AI 생성이미지. /량편미디어

는 "이번 사전 공개 기간의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한 차단을 줄이고 더 원활한 경험을 만들어 광범위한 출시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워싱턴주 의료 기관 전 CEO, \$2,400만 횡령·전신사기 혐의 유죄

- ▶ 전 CEO, 2017년부터 6년간 회사 계좌서 자금 빼돌려
- ▶ 주식·옵션 투자 실패 후 손실 만회 위해 추가 횡령 반복
- ▶ 픽업트럭·테슬라·보트·귀금속 등 개인 용도로도 유용

워싱턴주 북중부 지역의 한 의료 기관 전 최고경영자(CEO)가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패트릭 앨런 버크넘(Patrick Alan Bucknum, 55세)은 6월 24일 워싱턴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전신사

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피트 세라노(Pete Serrano) 연방검사가 밝혔다. 버크넘은 워싱턴주 전역의 의료 클리닉 컨소시엄을 위해 의료비 지급 계약을 관리하는 웨나치(Wenatchee) 소재 기업 커뮤니티 클리닉 네트워크(Community Clinic Network, 이하

CCN)의 전 CEO다. ◆ 소셜미디어 공격적 투자 전략 따르다 손실 눈덩이 검찰에 따르면 버크넘은 2017년 4월부터 CCN의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주식,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법원 문서에는 그가 초기에는 투자 수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뒤 횡령한 자금을 CCN에 반환할 의도였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공격적 투자 전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리한 거래로 대부분의 자금을 잃은 뒤에도 손실을 만회하려 추가 횡령을 반복했다.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버크넘은 CCN에서 약 \$3,000만을 횡령했으며, 같은 기간 약 \$700만을 회사에 반환했다. 2024년 8월에는 귀금속 코인 구입을 위해 \$119만 9,000을 추가로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횡령 자금으로 차량·보트·귀속 개인 구매 범

원 문서에 따르면 버크넘은 횡령한 자금으로 픽업트럭 구입에 \$10만, 테슬라 차량에 \$7만 7,000, 보트에 \$3만 3,000을 지출하는 등 개인 용도로도 자금을 유용했다. 검찰은 버크넘이 CCN에 입힌 손실이 총 약 \$2,436만 8,427에 달한다고 밝혔다. 버크넘은 유죄 인정 합의 일환으로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픽업트럭, 테슬라, 보트, 금·은·백금 등 귀금속 코인을 미국 정부에 몰수당하는 데 동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벼룩시장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무: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근무지: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페이조건: \$22~\$52.08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북경가든 주방장 구함

주방장 구함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253.588.2399

Auburn 하우스 렌트

Gated 커뮤니티 2bed, 1den, 2.5bath, 주차장(차2개 주차) 마스타 bed 1층 위치, 월렌트 \$2,750, 수도, 하수도, 잔디관리비 포함(월\$250)
Total: \$3,000

연락처 206-356-2388 (메세지)

박스광고

\$80 / 4회

206-779-5382

단독 별채 (Separate Unit) 임대

페더럴웨이 TJ High School 근처에 있는 단독 별채를 렌트합니다. 3Bedroom과 욕실 1.5개(1 full+half), 넓은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1,300sqft 넓은 집이며, 렌트비는 월 \$1,850(유틸리티/공과금 별도) 6월 4일 이후 입주 가능

253-332-5332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 NO MSG, 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 (카톡주문 가능)

조선용보험에서 함께 성장하실 에이전트 및 office assistant를 찾습니다.

영어, 한국어 사용
컴퓨터 사용 (Excel, Word)
메디케어, 워싱턴 헬스 플랜 중점 취업가능자 (full time/ part time)
베네핏 가능, 영문 이력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5.951.9210
justinc@evergroup.us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페더럴웨이 경치좋은 레돈도 비취에 있는 1층 전체 렌트

화장실1, 방1, 거실
인터넷 설치 완비
금연자 환영. \$950/M.

213-819-2556

구인

H-mart Tacoma 구인
지원자격: 미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부서: Cachier, Bakery, Deli

근무조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점심 제공

(425) 312.4588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구인] Park Chenaur and Associates, LLP

법률 보조 / Legal
Assistant (한·영 능통)

Federal Way 소재 개인상해 로펌에서
.한국어·영어 능통자를 찾습니다.
풀타임 사무실 근무
연 \$40,000~\$50,000

무료상담

편안한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가정, 자녀, 신앙 등에
관한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53-503-9984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
(Sea Tac 근처)지역
(전화, 문자)

206-334-7532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시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뷰티 서플라이 일하실 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실 분
경험자 우대
full or part time

253 228 4727 / 504 444 7453

업무: 고객·변호사 소통, 서류 / 기록 관리, 사건 진행 보조
자격: 한국어 필수, 컴퓨터 활용 능력, 꼼꼼함·책임감
우대: 법률사무소/사무직/고객응대 경험

혜택: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등

문의: (253) 461-0810
및 Indeed.com 참조

렌트

벨링햄
방 한개만
사용할 학생
\$800/월

(253) 334.6078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곱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룸렌트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쉬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253) 582.2975

스페이스 리스

스노퀼미 마켓 Empty Space 렌트
스노퀼미역 바로 앞/스노퀼미
폭포 관광지에서 1마일 / 커피, 빵
스무디 등의 비즈니스에 적합
Set - Up 공사기간 3개월
FREE Rent, 1,895 Sqft
렌트비 : \$3,947+ NNN

(206) 496.7060

아파트 렌트

▶방1, 큰화장실1
유틸리티 \$150
렌트비\$1,500

▶방2, 화장실1
유틸리티\$150
렌트비\$1,500

방 렌트

씨택 공항 근처
렌트비: 750불(유틸리티 포함)
남학생, 직장 다니시는 분
환영.
금주, 금연 하시는 분 환영

206-679-9208

간병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청소/요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항시 남/여
일할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 571.8080

민박

조용하고
깨끗한 지역에서
방렌트 합니다.
타코마 지역

(253) 571.8080

병원 스페이스 렌트

L.AC, DPT, LMT
Office space for Rent
815 sqft
(Including rooms, recreation
rooms, and bathrooms)

253-941-6779
Email:chachiropractic@gmail.com

▶방1, 화장실1
유틸리티 \$100
렌트비\$1,200

신축, 좋은 로케이션
(타코마 부한 바로 옆)

253-302-7095

박스광고 \$80/4회 206-779-5382

워싱턴주 세무부 팀 제너리치, 전국 리더십 공로상 수상

전국 세무 행정 발전 기여 인정... 혁신적 세무정책 · 납세자 중심 행정 높은 평가

워싱턴주 세무부의 세제정책 담당 책임자인 팀 제너리치가 미국 세무 행정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적인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워싱턴주 세무부는 최근 제너리치 수석 부국장이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국 세무 행정관 연합(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 FTA) 연례 총회에서 'Harley T. Duncan 리더십 및 공로상(Harley T. Duncan Leadership and Service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 세무부 세무정책 담당 수석 부국장으로 재직 중인 제너리치

는 세무 정책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 5개 부서를 이끌고 있다. 그는 약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혁신적인 세무 행정과 투명성 제고, 주(州) 간 협력 강화, 납세자 중심의 행정 개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기업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보다 신속하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임시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적인 활동도 두드러졌다. 제너리치는 다주(多州) 세무위원회의 디지털 제품 통일성 프로젝트(Digital Products

Uniformity Project) 의장을 맡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세무 기준 마련에 기여했으며, 간소화된 판매세 관리위원회(Streamlined Sales Tax Governing Board) 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또한 연방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세금 공정법(Digital Goods and Services Tax Fairness Act)의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주의 세수 보호에 기여했고, 워싱턴주 원주민 부족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도 힘써 왔다. 존 라이저 워싱턴주 세무부 국장 대행은 "팀 제너리치가 워싱턴주는 물론 전국적인 세무 정책 발전을 위해 수행한

업무는 모든 주의 세무기관과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탁월한 재능과 높은 청렴성을 갖춘 리더와 함께 일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FTA의 사론 본아디 사무총장도 "제너리치는 거의 20년 동안 워싱턴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을 위해 세제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며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전국 세무 행정관 연합(FTA)은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뉴욕시의 세무 및 세입 기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매년 탁월한 비전과 혁신, 열린 소통, 지속적인 학습,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리더십을 보여준 세무 행정 분야 지도자에게 Harley T. Duncan 리더십 및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 세무부는 주 정부의 대표적인 세무 행정 기관으로 약 60개 세목을 관리하며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근로 가구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 미청구 자산(Unclaimed Property) 반환 프로그램 등 주민들에게 각종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시애틀, 월드컵 개최도시 평가 '미국 4위'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이 미국 월드컵 개최도시 가운데 종합 4위에 선정됐다고 카이로 7뉴스가 27일 전했다. 좌석 예매 플랫폼 시트픽(SeatPick)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시애틀은 경기장 환경과 물가, 치안, 숙박비, 날씨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미국 개최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평균 기온 ▲경기장 수용 인원 ▲강력범죄 발생률 ▲모기 발생 정도 ▲맥주와 생수 가격 ▲호텔 숙박비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미국 내 1위는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가 차지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로스앤젤레스)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시애틀은 특히 경기장의 뜨거운 응원 분위기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팬들이

국가를 함께 부르고 존 덴버의 명곡 '데이크 미 홈, 컨트리 로즈'를 합창하며 경기장을 흔들 정도의 열기를 보여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반면 숙박비는 약점으로 지적됐다. 시애틀의 호텔 요금은 미국 개최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비싼 수준이었다. 다만 뉴욕의 호텔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집트 대표팀을 응원

하기 위해 시애틀을 찾은 하젠 하산 씨는 "물가가 다소 비싸지만 월드컵은 4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행사인 만큼 직접 경기를 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에서 이란 경기를 보기 위해 방문한 시안 아시아시아이 씨도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비교하면 시애틀은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애틀은 맥주와 생수 가격은 개최도시 중 공동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치안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 대비 강력범죄 발생률은 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월드컵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소 부담 요인으로 평가됐다. <조이시애틀뉴스>

미디어한국
시애틀코리아데일리
KBS Washington
스포츠서울 USA
WOMAN'S
haninsosik.com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업소록 광고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2 가지 혜택

1 전자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MS Media Group에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는 전자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2 웹사이트 광고비 50% 할인 혜택

MS Media Group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께 광고비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206.779.5382 / E-mail: mediahankookweekly@gmail.com

GC녹십자아이메드

믿을 수 있는

진심 건강검진, GC녹십자아이메드에서 시작하세요!

상담 · 예약 · 검진 진행 ·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검진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서울 3개
검진센터 네트워크**
강남 · 강북 · 서울숲

**연령별 · 질환별
맞춤 설계**
기본검진 · 암검진
뇌/심장 정밀검진

★ GC녹십자아이메드 해외동포 추천 검진 프로그램 ★

종합검진



베이직 종합검진 남: 75만원
여: 80만원

- 신체구성(체지방) ■ 안과(안압, 압저, 시력) ■ 청력 ■ 폐기능
- 심전도 ■ 흉부 X-Ray ■ 골밀도 ■ 상복부 초음파 ■ 갑상선초음파
- 위내시경(위장촬영-강남, 강북) ■ 소변, 대변(50세이상)
- 혈액종합검진 [빈혈, 혈당, 당화혈색소, 간기능, 고지혈증, 류마티스관절염, 신장기능, 간염(A,B,C형), 종양표지자 (간암, 소화기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체중요소, 요산, 갑상선, 부갑상선, 전해질, 베타탄민]
- 부인과검사(유방촬영, 자궁암검사)



골드 종합검진 남: 100만원
여: 1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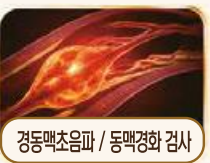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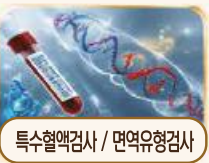
- [베이직 종합검진] + 하복부초음파(부인과(여), 전립선(남)) + 유방초음파(여) + ①저선량 폐CT ②뇌CT ③요추CT ④경추CT ⑤심장CT(칼슘 스코어링) ⑥대 장수면내시경 ⑦심장주위비만CT ⑧비타민주사(강북, 서울숲)
①~⑦ 항목 중 택 1

플래티늄 골드 검진

골드종합검진 외 MRI, 특수혈액검사, 종양표지자검사가 추가 되어
거의 모든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검진 프로그램

남: 290만원 / 여: 310만원

- [베이직 종합검진] + ■ 부인과/유방초음파(여) ■ 전립선초음파(남) ■ 심장CT(칼슘스코어링) ■ 경동맥초음파 +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여) + 저선량 흉부CT + 위/대장 수면내시경 ■ 동맥경화 + 호르몬 균형검사 ■ 뇌 MRI + 뇌 MRA + 면역유형검사 ■ 전립선 정밀암표지자 ■ 닥터눈(AI 심혈관 위험도 평가) ■ 호모시스테인 + 지능헬스 유전자검사 ■ 13종(암 5종, 일반질환 8종)평가



심장정밀 특화검진

종합검진시 심장정밀 특화검진을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65만원

- 심장CT(칼슘스코어링) ■ 심장초음파 ■ 경동맥초음파
- 동맥경화 ■ 호모시스테인 ■ 닥터눈(AI 심혈관 위험도 평가)

뇌정밀 특화검진

종합검진시 뇌정밀 특화검진을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90만원

- 뇌 MRI ■ 뇌 MRA ■ 경동맥 초음파 ■ 동맥경화
- 호모시스테인 ■ 닥터눈(AI 심혈관 위험도 평가)



GC녹십자아이메드 검진센터
강남의원 · 강북의원 · 서울숲의원



편리한 각 지역
최적의 접근성



전문의료진의
정밀한 진단



검진 후 사후관리
및 맞춤 상담



— 정확한 검진 · 신뢰할 수 있는 의료 · 건강한 미래 —

서북미 본부장 **에스터 나**

Tel: **206-779-5382**

skgid7700@gmail.com

☎ 검진 프로그램, 비용, 예약 가능일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만 진행)

H MART

JUL 3RD - JUL 9TH, 2026

INDEPENDENCE DAY Sale

474g, 908g
비빔냉면, 물냉면
3.98 EA

840g 3종
초립통이 고기양념
2.98 EA

520g 2종
동대문 엽기떡볶이
6.98 EA

HOT DEALS

360g
양념떡고치
5.98 PK

4LBS
FREEBAY
50/60 머리새우
12.98 PK

4 days ONLY
아들포망고
12.98 BOX

4 days ONLY
BBQ, Half, Sliced
삼겹살
6.48 LB

MART+ FOOD KOREAN FOOD

Delicious K-FOOD Festival 2026

July 3 - July 12

TASTE • DISCOVER • ENJOY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시식 행사 일정 총 6일

행사 장소 WA 페데럴웨이-타코마-레드몬드-발라드 OR 타이거 UT 웨스트 조던
* 예시 이미지 외 다수 품목 시식을 진행합니다

1주차	금	FRI	토	SAT	일	SUN	2주차	금	FRI	토	SAT	일	SUN
		7/3	7/4	7/5				7/10	7/11	7/12			

FREE TASTING FRI/SAT/SUN!

Experience authentic Korean flavors before you buy.

PRODUCE SALE 야채

4 days ONLY 금/토/일/월

제스프리 골드키위
2LBS 골드키위 **8.98 PK**

리치 **1.78 LB**

3LBS 교호 거봉포도 **11.98 PK**

백/황천도 복숭아 **2.28 LB**

참외 **21.98 BOX**

석류 **21.98 BOX**

줄기 토마토 **1.98 LB**

쥬키니 **0.68 LB**

생강 **1.48 LB**

시금치 **0.98 EA**

청경채 **1.28 LB**

페르시안 오이 **1.28 LB**

MEAT DEALS 정육

4 days ONLY 금/토/일/월

차돌박이 **9.98 LB**

앵거스 초이스 우삼겹 샤브 **8.48 LB**

찌게용삼겹살 **2.98 LB**

목살구이용 **5.48 LB**

돼지등갈비 **5.48 LB**





냉장 돼지불고기 **4.48 LB**

Available at C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U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p>10kg (하동군) 하웅촌쌀 23.98 BAG</p>	 <p>15LBS (삼수감산) 현미 10.98 BAG</p>	 <p>210g (CJ) 현미밥 / 흑미밥 20.98 BOX</p>	 <p>12pk/86g (농심) 육개장 사발면 12.98 BOX</p>	 <p>16pk/190ml (이름) 국산콩두유 7.98 BOX</p>	 <p>350g (오리온) 꼬북칩2Mix 8.98 BOX</p> <p>155pk/600g (오리온) 김맛 고래밥 8.98 BOX</p>
 <p>465g, 510g (비비고) 볶음밥 5.98 EA</p>	 <p>890g (한상) 정통짜장면 5.98 EA</p> <p>136kg (한상) 정통진화짜장 6.98 EA</p>	 <p>640g (한상) 왕만두 3.98 EA</p>	 <p>36oz (홀무원) 이슬만두 7.98 EA</p>	 <p>1kg (한상) 김말이튀김 6.98 EA</p>	 <p>3pcs/850g (초립동이) 햇찰옥수수 3.48 EA</p>
 <p>500g (초립동이) 절단꽃게 4.98 EA</p>	 <p>340g (초립동이) 순미역 9.98 EA</p>	 <p>2.5kg (백설) 밀가루 3.98 EA</p>	 <p>170g (사조) 양념쌈장 0.98 EA</p>	 <p>350g (대림산) 쌈무 1.98 EA</p>	 <p>232g (삼진) 미니 어묵꼬치 3.48 EA</p>
 <p>5pk/130g (팔도) 라면 4.98 EA</p>	 <p>6pk/65g (오뚜기) 진라면 5.98 BOX</p>	 <p>12pk/5g (초립동이) 김3종 3.98 EA</p>	 <p>2pk/100g (초립동이) 오징어채 7.98 EA</p>	 <p>5pk/160ml (롯데) 아이스크림 파우치 5.98 EA</p>	 <p>1.5L (CALPICO) 칼피코 드링크 4.48 EA</p>
 <p>12pk/348g (오리온) 참붕어빵 5.98 EA</p>	 <p>180g (DF) 크리스피롤 1.98 EA</p>	 <p>2pk/120g (그린햇) 까먹는군밤 2.48 EA</p>	 <p>300g (삼립) 도리아끼 3.48 EA</p>	 <p>8pk/150g (삼립) 화이트슈 초코슈 2.48 EA</p>	 <p>200g (떡보의하루) 빵설기 5.98 EA</p>

SEAFOOD SALE 수산

 <p>2LBS (BEST SEAFOOD) 참조기 11.98 PK</p>	 <p>아구꼬리 3.48 LB</p>	 <p>2LBS (KPF) 민물새우 20.98 PK</p>	 <p>1LB (SAVE+) 명란젓 11.98 PK</p>
---	--	--	---

DELI SPECIALS 반찬

 <p>250g (레몬랜드) 감자샐러드 3.78 PK</p>	 <p>125g (레몬랜드) 명이나물 2.98 PK</p>	 <p>125g (레몬랜드) 된장고추 2.98 PK</p>	 <p>220g (레몬랜드) 흑임자두릅떡 3.98 PK</p>
--	--	--	---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p>3.2L 스마트 킵레쉬 10.78 EA</p>	 <p>(일품) 야채도끼칼 10.78 EA</p>	 <p>(HIGH) 써클LED 헤드패 10.28 EA</p>	 <p>탄탄 접이의자 총형 7.98 EA</p>
--	---	---	---

항공수산전

Fresh Seafood, Flown Directly from Korea!

신선한 바다의 맛을 그대로 — 활광어, 활도다리, 멍게, 아나고횱감 봉지해삼, 봉지멍게 그리고 민물장어(구이용)를 즐겨보세요.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Bellevue | Federal Way | Lynnwood | Redmond
Tacoma | Ballard | Lynnwood Gmart (8am - 9pm)

과 UW Seattle 매장은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제품은 조기 품절되거나,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물의 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H MART에 있습니다.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 No.1 한인 여행사

드림투어

206.200.3113

주소: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OK Handyman

페인트 · 보일러 · 펜스
데크 · 각종 집수리 등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연금저축보험 / 대학자금 / 일반연금 / 암보험

조요섭 종합보험

자동차 · 사업체
주택 · 생명보험

문의 253.459.9800
개인별 맞춤설계 / 외사별 비교견적 / 신속상담

최고 실력, 최고 부품사용 개런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서비스!

One Stop 그린우드 종합정비
Tony's 그린우드 오토바디

Tel. 206-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03

20년의 경력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일하는

김연정 부동산

YON KIM Managing Broker
Best Choice REALTY

253.227.6673
yon@bestchoicerealtywa.com



청포도의꿈, 청진과 포항을 잇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민주평통, 지난달 30일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성황리 개최
"포항 이육사 · 청진 운동주 시인 서사 미래 평화경제 구상으로 발전시켜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애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벨뷰 시청에서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청포도의 꿈' 을 개최했다. 사진은 황규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Page-14>

"친절하고 성실한 메디케어 전문"

메디케어 상담전문 이영이 보험

206.407.8478
youngyi712@gmail.com

가정의학과 / 소아과 / 부인과 / 노인과 / 내과 / 정신건강 / 응급치료 / 각종예방접종

채정희 클리닉

ADVANCED FAMILYCARE MEDICINE

모든보험 | 스킨케어
원격진료(Virtual Care) 가능

"1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료해드립니다."

☎ 253-314-5742 레이크우드 부한플라자 내에 위치

광고 문의 206.779.5382

패티임 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노후계획 무료상담

253-632-8904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E-mail : girlpatti1@gmail.com

벤슨 종합 동물병원
Animal Clinic of Benson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케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벤전동물 의료서비스

Dr. Simon Kim & Dr. Jaysoo Lee
Advanced Veterinary Care
animalclinicofbenson.com

철단 수의학 진단 · 치료 · 종합검진 · 내과 · 정형외과 · 초음파 · 일반외과 · 국외 통관

10700 SE 208th St #204 Kent, WA 98031 253-852-6330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SLEEPING CAMEL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Premier Wool

VVIP 고객들의 재구매율 1위 제품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2027년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www.haninsosik.com

문의 : 206-779-5382

주방장 구함

Peking Garden Chinese Restaurant

북경가든

여기!

맞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짬뽕과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집

예약/주문 253.588.2399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9701 So. Tacoma Way #115 Lakewood, WA 98499



L&I CLAIMS CENTER

YOU WORKED. YOU DESERVE TO GET PAID.

일한 만큼, 반드시 받으세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보복 조치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L&I CLAIMS CENTER가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회계사 + 변호사 팀

- ✓ 정확한 임금 계산
- ✓ 강력한 법률 전략



최소 리뷰비용
+ 성공보수제
승소 시에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빠른 대응
24~48시간 내
상담 가능!

무료 상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 비용 걱정 없이 상담 가능
- ✓ 당신의 상황을 비밀로 보호
- ✓ 전화 한 통으로 권리 확인!

☎ 253 313-2738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현금 지급으로
기록이 없음



부당 해고



신고 후
보복 조치



급여 누락 또는
부당 공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과정

1



사례 검토
당신의 상황과
기록을 분석합니다.

2



정확한 금액 계산
높은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회계사 지원)

3



클레임 진행
L&I 클레임 접수부터
협의까지 진행합니다.

4



보상 회수
당신의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실제 사례로 증명합니다!

\$65,908.03 회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Restaurant Worker
Seattle, WA

\$47,834.37 회수
보복 조치 및 임금 체불

Construction Worker
Tacoma, WA

\$24,649.27 회수
현금 지급 및 급여 누락

Restaurant Worker
Tacoma, WA

\$27,800 회수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Warehouse Worker
Kent, WA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내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253 313-2738

무료 상담 | NO FEE UNLESS WE WIN



Washington State 전역 서비스

Seattle | Tacoma | Bellevue | Everett | Spokane | Vancouver



L&I CLAIMS CENTER



주요 서비스

- ✓ 임금 체불 클레임
- ✓ L&I 클레임
- ✓ 부당 해고
- ✓ 보복 조치
- ✓ 독립 계약자 클레임



왜 저희인가요?

- ✓ 회계사 + 변호사 팀의 전문성
- ✓ 정확한 임금 계산
- ✓ 빠른 대응과 소통
- ✓ 한국어 & 영어 지원
- ✓ 성공을 위한 전략적 접근



부동산의 모든 것, 구매와 매매의 전 과정을 시작에서 끝까지 완성합니다.

Built on Trust. Completed with Value.



Designate Broker
대표.책임 공인중개사

김수영

206.999.7989

sykbellevue@gmail.com

“이사철의 계절, 집 장만의 계절”

주택 ◆ 커머셜 (호텔, 모텔, 주유소, 투자성건물) ◆ 사업체 EB-5 (투자이민) ◆ E2 (소액투자) ◆ 부동산관리

**Bainbridge Island 상가건물 & 61,855 sf.
상가건물건축 가능한(NSC)대지**

\$1,890,000



- ▲ 건물 6,000sf · 대지 61,855sf(1,738평) ▲ Fully occupied, gross \$20 매우 낮은 월세 ▲ 동네 유일 성업중 그로서리
- ▲ 주차 43대 가능 ▲ 20년 영업 유명 이태리인 식당 ▲ Upholstery 및 주차장 수입 포함 ▲ 현재 월 렌트 \$9,200 (곧 대폭 상승 예상) ▲ 오지 사거리 중심 Mixed Use Zone ▲ 상가·사무실·콘도·Storage 개발 가능 ▲ 유입인구 증가, 미래 투자성 높은 부동산 ▲ 우체국·법원·교회 인접 중심지

벨뷰콘도(Mira Bellevue)

\$1,340,000



- ▲ 벨뷰 다운타운 벨뷰 스퀘어 건너편 Mira 콘도
- ▲ 방 3개, 화장실 2개, 차고 1, 창고 1, 1,191sf
- ▲ 벨뷰 중심지에 위치한 편리한 지역
- ▲ 쇼핑, 병원, 공원, 호수 가까운 조용한 지역
- ▲ 현재 월 \$3,850 렌트 수입, 2027년 7월까지 리스돼 있는 상태

Lakewood 시, 고급한식 식당

▲ 매상: 월 12만불, 일매상 \$3,800

▲ 장비: 모든 장비와 시설은 최고상태

\$480,000

▲ 사이즈: 3,050 sf.

▲ 렌트: \$5,500

(NNN 모두 포함됨)

▲ 리스: 5-5 가능

▲ SBA 용자 가능.

▲ 경험있는 새주인에게 적합



최고급 시설 담배가게

▲ Richland (트라이 시티)

Safeway 건물 내 위치.

\$300,000

▲ 월매상: \$80,000-\$85,000

▲ 사이즈: 2,000 sf.

▲ 렌트: \$4,080 (NNN 모두 포함 됨)

▲ 리스: 3.5+5

▲ Absentee-owned business

▲ 인벤토리 약 \$100,000 (주인용자 가능)



김기호

253.651.3777

khkhelix@gmail.com



**강력한
협력팀**

- 용자팀: 주택용자 비영주권자 용자 상업 용자 ● 스테이징 서비스
- 전문 사진사 ● Property management 자매회사 ● 핸디맨/건축회사

김수영
부동산
주택 | 커머셜 | 사업체

206.999.7989

Designated Broker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2018 회장
sykbellevue@gmail.com



**헬릭스 미국
이민정착 종합상담소**



1085 103rd Ave NE Bellevue, WA 98004
최신 리스팅과 정보는 sueyoungkim.com 에서 확인하세요

탐방-홍콩반점(Paik's Noodle)

가격은 특별 세일가...맛은 최고급 중식 맛^^

'짜장면'과 '짬뽕'에 '탕수육'까지 시켜도 47.85달러에 불과 레시피 철저히 지키며 홍콩반점 본연의 중식 맛 유지...맛도 일품



“이만한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짬뽕을 드셔보셨나요?” 벨뷰에 있는 홍콩반점(Paik's Noodle)이 개업 3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2024년 '블랙프라이데이'에 야심 차게 문을 연 홍콩반점이 벨뷰 1호점에 이어 올해 린우드에 2호점을 연 것.

린우드에는 홍콩반점 1호점이 있는 벨뷰보다 맛있는 중식당이 더 많아 말 그대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 그러나 언제 먹어도 맛있고 저렴한 짜장면과 짬뽕을 린우드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에 린우드 한인들은 마냥 즐겁다.

홍콩반점이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콩반점에 깃든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서민' 음식을 '서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 그렇다고 재료를 아껴가며 단가를 낮추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게다가 맛까지 훌륭해, 짜장면과 짬뽕을 좋



아하는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니 이 또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시기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지인과 함께 가서 '짜장면'(12.95달러)과 '짬뽕'(15.95달러)에 '탕수육'(18.95달러)까지 시켜도 47.85달러에 불과하다.

그게 뭐가 싸냐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어딜 가서 뒤편을 먹어도 한가지 메뉴에 20달러는 줘야 한다. 따라서 홍콩반점은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면 탕수육을 공짜로

주는 가격구조인 셈이다.

간혹 이러한 본사 방침의 가격구조가 맘에 안 들어 레시피 대로 하지 않고 슬쩍 재료를 빼는(?) 업주들도 있는데 반해, 워싱턴주 조세핀 리 대표는 레시피를 철저히 지켜가며 홍콩반점 본연의 중식 맛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조세핀 리 대표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천생 음식

점 사장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머지 음식 장사가 재미있단다.

특히 자신이 만들어 파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는 손님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외식비에 외식 업주도 못 내는 한인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홍콩반점에 들러 맛있는 중식당 한 그릇 어떠실는지요? **박재영 기자**



홍콩반점 주요 메뉴.



주방 모습.



벨뷰점 내부 모습.



린우드점 내부 모습.



1호점 벨뷰 425)698-1370

▲주소: 677 120th Ave NE Bellevue, WA 98005
▲웹사이트: eatpaiks.com (화요일 휴무)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30분-오후 9시

2호점 린우드 (얼더우드 플라자) 425)712-9968

▲주소: 18700 33rd Ave W Ste F Lynnwood, WA 98037
▲웹사이트: eatpaiks.com (화요일 휴무)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30분-오후 9시



ONDemand KOREA
TV Box

우리클리 **Kooli**



**합법적으로 미주 No.1
한국방송 시청하세요.**

미국 내 최다 시청 ODK TV Box!
이제 거실에서 간편하게 TV 로 보세요

고화질! 저렴한 가격! 무약정! 무료렌탈!

최다 채널 보유, 실시간 서비스, 스마트폰/패드/PC 에서도 이용 가능.

\$19⁹⁹/월



ODK BOX

FREE

최대 합법 IPTV 한국 방송
지금 1년 서비스 구매하시면

\$100 Smart TV BOX 무료!
온디맨드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ODK BOX 단말기 증정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ODK BOX 서비스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는 \$100에 구매하거나, \$50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1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100 상당 전용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년 서비스 사용료 또한 240불에서 180불로 할인해드립니다.

ODK BOX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ODK BOX는 셋톱 박스로, 아무런 종류의 TV에 기기만 연결하면, 모든 ODK 콘텐츠를 큰화면에서 리모콘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ODK BOX만의 특별한 혜택

최신/구작 다시보기 + 실시간 + 100개 채널제공
무약정 / 단말기 무료렌탈
All in One(티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시청 가능)
온디맨드코리아 PREMIUM 멤버십 제공(동시 시청 최대 5명)

ODK BOX CARE +

친절한 한국어 기술지원, 설치 안내 및 상담, 단말기 무상교체, 안심케어

린 우 드 : 253-230-7928 (정관장 린우드)
에 드 몬 즈 : 425-773-3525 (Ace Life USA)
페더럴웨이 : 253-232-9277 (K-Beauty)

우리 거실에서 편안하게
티비로!
우리클리 **Kooli**



나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ONDemand KOREA
PREMIUM Membership

한인생활상담소, 한인 시니어 위한 '늘푸른 건강교실' 운영

노스쇼어 시니어센터와 협력...건강관리 · 치매예방 · 복지정보 제공
매주 토요일 바슬에서 진행...교통편 및 메디케이드 연계 지원도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노스 쇼어 시니어센터(Northshore Senior Center)와 협력해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늘푸른 건강교실(Forever Green Health Class)'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스쇼어 시니어센터의 병설기관인 노스쇼어 헬스 & 웰니스센터(Northshore Health & Wellness Center · 10212 E Riverside Dr Bothell, WA 98011)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신체적 · 정서적 ·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인생활상담소는 그동안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늘푸른 건강교실'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시니어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 정보와 복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증진 활동을 비롯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향상 활동, 건강 · 복지 정보 제공, 사회적 교류와 친목 활동 등 시니어들의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미 소장은 "지역사회 한인 시니어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건강관리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니어는 한인 생활상담소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기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통편이 필요한 참가자들을 위해 DART(Dial-A-Ride Transit)와 ACCESS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Medicaid)와 다양한 지원기금을 통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인 시니어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및 대기자 등록에 관한 문의는 김성규 담당자(425-449-1458) 또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하면 된다.



2026년 9월 중으로 시작합니다!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Northshore Health & Wellness Center**
10212 E. Riverside Dr, Bothell, WA 98011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하투를 함께해요!

- 헬스케어**
전문 간호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와 모니터링 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
소셜워커가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 서비스 연결
- 다양한 활동**
하투를 즐겁게 만드는 문화, 여가, 두뇌 자극 활동
- 운동**
건강한 삶을 위한 쉽고 즐거운 운동
-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재미있는 게임 시간
- 정신 건강**
외로움, 우울증, 치매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향상
- 신체 건강**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 및 강화, 영양식 제공, 건강 교육

문의 전화:
425-449-1458,
425-776-2400

📞 모든 시니어 분들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한인생활상담소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모두를 위한 신문

MS MEDIA GROUP CORP.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USA 오우먼즈

미디어한국 발행인 박재영
편집인 박재영
전화 206.779.5382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mediahankookweekly@gmail.com

스포츠서울USA
The Oregon Times

Media Hankook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Subscription rate and the monthly delivery rate in most areas are \$15/month for minimum 4-day services per on month.

미디어한국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구독료 150달러를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Periodical Postage Paid at Federal Way and
크레딧카드로 신청하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additional mailing offices.
우송하여 드립니다.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Media Hankook is published weekly for \$150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per year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Federal Way, WA 98003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광역시애틀한인회

신뢰받는 메신저,
소상공인을 위한 알림이 시애틀한인회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upported by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워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업반등네트워크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의 파트너

“코비드로 인해 타격받은 워싱턴주 소상공업의 회복과 번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공평하게 지원합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듯한 사각지대에 계신 동포 소상공업체에게 현사업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번역, 조언과 기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206-669-2578

파킹장

아스팔트, Seal코팅,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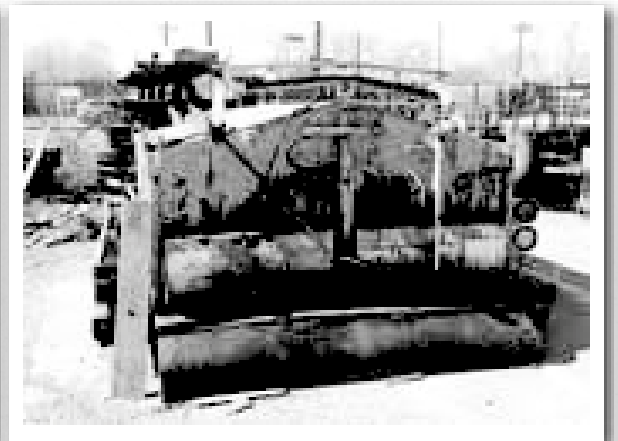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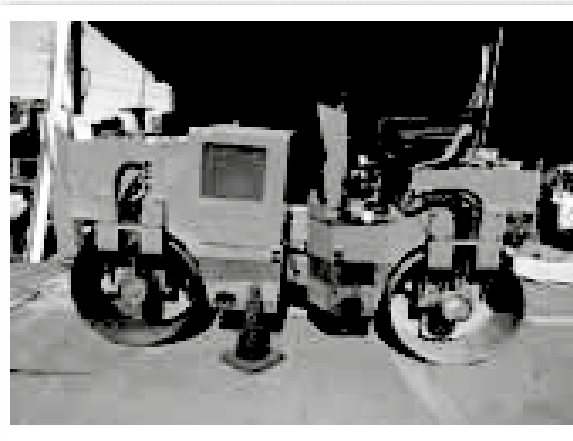


파킹장 문제 해결사!

- 체인 링크 펜스
 - 철제 펜스&게이트 설치 전문
- 최신장비 신속하고 확실한 서비스

보수공사, Line, Sign (핸디캡, 노파킹)

- 병원, 교회, 호텔, 모텔
- 게스 스테이션, 그로서리, 식당
- 쇼핑몰, 아파트, 타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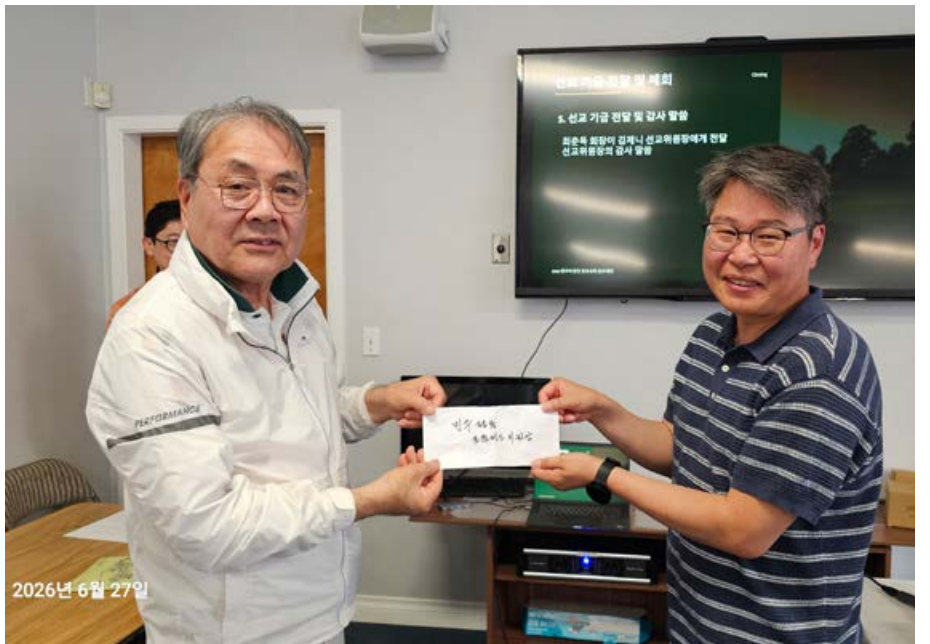


Bruce & Sons Asphalt
2208 Pacific Hwy E Tacoma WA 98424

이완식

office 253.922.0200

cell 253.334.9654



골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 포틀랜드 송영옥 지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귀한 기금으로 사용"

밴쿠버한인장로교회, 지난 6월 27일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오리건 · 밴쿠버 지역 성도들 참여...박창영 · 김연옥, 남녀 챔피언 차지

밴쿠버한인장로교회(담임 송성민 목사)가 지난달 27일 로즈시티 골프장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성도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솔로몬전도회(회장 최춘득) 주관으로 열렸으며, 송성민 담임 목사를 비롯해 송영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틀랜드협의회장과 오리건 주 및 워싱턴주 밴쿠버 지역 성도, 후원자들이 참석해 선교 사역을 위한 기

금 마련에 동참했다. 개회식에서 송성민 목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골프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들과 선교기금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마련된 선교기금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참가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경기 종료 후에는 김대욱 경기위원장

의 사회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남자 챔피언 박창영 ▲여자 챔피언 김연옥 ▲남자 1등 이성호 ▲여자 1등 이혜숙 ▲남자 2등 이동명 ▲여자 2등 전영희 ▲남녀 KP 최춘득 · 박인숙 ▲남녀 롱기스트 드라이브(LD) 장명진 · 이은숙 씨가 각각 차지했다. 행운상은 송성민 목사님과 임명화 권사가 수상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식사도 정성껏 준비됐다. 점심은 마리아선교회(회장 조미

화 권사)가, 저녁 식사는 에스터선교회(회장 김제니)가 마련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틀랜드협의회(지회장 송영옥)가 후원했으며, 김대욱, 김석배, 김선환, 김정희, 신선영, 오세형, 이흥복, 이한익, 좌용집 씨 등도 선교기금 후원에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최춘득 솔로몬전도회 회장은 "교회 성도들의 친목과 화합은 물론 선교 사역

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행사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밴쿠버한인장로교회는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선교기금을 국내외 선교사역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선교와 나눔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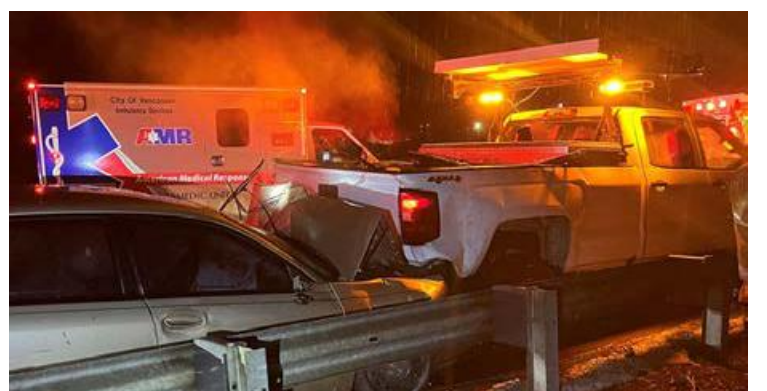
워싱턴주 공사구간 속도위반 카메라, 7월 1일부터 초범 \$125 벌금 부과

- ▶ 1년여 경고 기간 종료, 이제는 실제 벌금
- ▶ 초범 \$125 · 재범 이상 \$248...주 의회 승인 거쳐 시행
- ▶ 2027년까지 카메라 15대 운용 목표

워싱턴주 공사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초범에 대한 실제 벌금 부과를 시작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는 7월 1일부터 공사구간 속도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의 초범 벌금을 기존 \$0에서 \$125로 올린다고 밝혔다. 2차 위반 이상에 대한 벌금 \$248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변경은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8만 5천여 건 단속 공사구간 속도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은 지난해 4

월 시작됐으며, 그간 초범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해왔다. 현재까지 주 전역 약 50개 공사현장에 카메라가 900회 이상 배치돼 총 8만 5천여 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약 7만 7천 건은 초범이었다. 프로그램은 최초 I-5(인터스테이트 5번)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Joint Base Lewis-McChord) 인근 구간에서 시작됐으며, 최근 워싱턴주 동부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주 당국은 2027년까지 카메라 15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 카메라 작동은 실제 작업자

현장 있을 때만 카메라는 공사 인부가 실제 현장에 있을 때만 과속 차량을 촬영한다. 단, WSDOT는 공사구간이 주간과 야간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모든 공사구간을 활성화 구간으로 간주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속 통보서는 위반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30일 이내 우편으로 발송된다. 수신자는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인정, 검토, 이의 신청 또는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각 잠재 위반 건에 대해 트루



[사진=WSDOT제공] 고속도로 공사구간 사고는 워싱턴주 도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퍼(trooper · 주 순찰대원)가 카메라 영상과 데이터를 검토한 후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 "순찰 인력 부족 보완하는 전력 배가 수단" 존 바티스테(John Batiste) WSP 서장은 "이 광활한 주 전역의 모든 공사구간에 24시간 트루퍼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카메라를 전력을 배가시키는 수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WSDOT는 이 프로그램이 세수 확보보다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인 카메라 운용이 공사구간 내 차량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돕는

이동은 공인회계사
Diane Lee, CPA

☎ 425-678-0521
✉ dianeleecpa@hotmail.com
🏠 www.dianeleecpa.com
18514 Highway 99 Ste E, Lynnwood, WA 98037

SKJ & Company, P.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고객의 확실한 길잡이

정세계 공인회계사
Seke Jung, CPA

☎ 206-367-6782
✉ info@skjcpa.com
🏠 www.skjcpa.com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

SHK GROUP PLLC
CPA & BUSINESS ADVISORS

Trusted Tax & Accounting

김성훈 공인회계사
Seong Hoon Kim, CPA

☎ 425-869-3670
✉ info@shkgroup.com
🏠 www.shkgroup.com
9 Lake Bellevue Dr, Ste 216, Bellevue, WA 98005 (Bellevue Office)
3440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윤중 공인회계사
Arnie Kim, CPA

☎ 253-984-9530
✉ arnie@kkcpa.us
🏠 www.kimnkimcpa.com
9602 S. Tacoma Way, Ste B, Lakewood, WA 98499 (Tacoma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흥중 공인회계사
Dennis Kim, CPA

☎ 425-640-3435
✉ dennis@kkcpa.us
🏠 www.kimnkimcpa.com
23416 Hwy 99, Ste B, Edmonds, WA 98026 (Edmonds Office)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감사는 확실하게, 공금증은 시원하게

김덕중 공인회계사
James Kim, CPA

☎ 425-223-5577
✉ james@kkcpa.us
🏠 www.kimnkimcpa.com
11542 NE 21st Street, Bellevue, WA 98004 (Bellevue Office)

PH CPA, PLLC
ACCOUNTING & TAX SERVICES

황바로 공인회계사
Paul Hwang, CPA

☎ 425-742-7675
FAX : 425-650-2972
✉ info@phcpapllc.com
4629 168th St SW Ste H, Lynnwood, WA 98037

Sora Son CPA, LLC.

손소라 공인회계사
Sora Son, CPA

☎ 425-361-7942
✉ sora@soncpa.net
19105 36th Ave W Ste 209, Lynnwood WA 98036

ALISA NA
명확한 맞춤회계

나은숙 공인회계사
Alisa Na, CPA

☎ 425-744-2742
✉ Service@alisanacpa.com
🏠 alisanacpa.com
8319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투명한 관리, 확실한 신뢰로 비즈니스의 내일을 함께 그려드립니다.

김호순 공인회계사
Danielle H.S. Kim, CPA

☎ 253-839-9301
✉ dkimcpa1@hotmail.com
🏠 www.daniellekimcpa.com
28815 Pacific Highway S. Ste 8, Federal Way, WA 98003

ASPEN
Financial & Tax Services

Your trusted CPA for personal and business finances

사브리나향 공인회계사
Sabrina Hwang, CPA

☎ 425-373-0380
✉ sabrinahwang@cpa.com
🏠 www.aspenfinancialtax.com
14205 SE 36th St., Suite 100, Bellevue, WA 98006

저희 WSKCPA
(회장 정세계 / 총무 김호순)에서는 정기세미나와 미주총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계사님께서는 저희 협회(info@wskcpa.org)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SKCPA
WA Society of Korean CPAs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 페더럴웨이 뉴호프

FEDERAL WAY NEW HOPE |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

숙제 도움 & 성경 공부

HOMEWORK & BIBLE ACADEMY



월요일 - 금요일

Monday - Friday



오후 3:00 - 6:00


3:00 PM - 6:00 PM




초등 · 중학생

Elementary & Middle School

◆ 프로그램 내용 ◆

■  숙제 지도 및 학습 도움
Supervised Homework Assistance

■  성경 공부 & 기도
Bible Study & Prayer

■  간식 제공
Snack Provided Daily

■  미술 & 창작 활동
Arts & Creative Activities

■  음악 & 야외 활동
Music & Outdoor Play

■  안전한 신앙 환경
Safe Faith-Based Environment

📍 오시는 길 / ADDRESS

31411 6th Ave South

Federal Way, WA 98003



수업료: 하루 \$20



206-759-0125

믿음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GC녹십자아이메드

믿을 수 있는

진심 건강검진, GC녹십자아이메드에서 시작하세요!

상담 · 예약 · 검진 진행 ·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검진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서울 3개
검진센터 네트워크**
강남 · 강북 · 서울숲

**연령별 · 질환별
맞춤 설계**
기본검진 · 암검진
뇌/심장 정밀검진

★ GC녹십자아이메드 해외동포 추천 검진 프로그램 ★

종합검진



베이직 종합검진 남: 75만원 / 여: 80만원

- 신체구성(체지방) ■ 안과(안압, 압저, 시력) ■ 청력 ■ 폐기능
- 심전도 ■ 흉부 X-Ray ■ 골밀도 ■ 상복부 초음파 ■ 갑상선초음파
- 위내시경(위장촬영-강남, 강북) ■ 소변, 대변(50세이상)
- 혈액종합검진 [빈혈, 혈당, 당화혈색소, 간기능, 고지혈증, 류마티스관절염, 신장기능, 간염(A,B,C형), 종양표지자 (간암, 소화기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체중요소, 요산, 갑상선, 부갑상선, 전해질, 비타민D]
- 부인과검사(유방촬영, 자궁암검사)



골드 종합검진 남: 100만원 / 여: 120만원

- [베이직 종합검진] + 하복부초음파(부인과(여), 전립선(남)) + 유방초음파(여) + ①저선량 폐CT ②뇌CT ③요추CT ④경추CT ⑤심장CT(칼슘 스코어링) ⑥대장수면내시경 ⑦심장주위비만CT ⑧비타민주사(강북, 서울숲) ①~⑦ 항목 중 택 1

플래티늄 골드 검진

골드종합검진 외 MRI, 특수혈액검사, 종양표지자검사가 추가 되어
거의 모든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검진 프로그램

남: 290만원 / 여: 310만원

- [베이직 종합검진] + ■ 부인과/유방초음파(여) ■ 전립선초음파(남) ■ 심장CT(칼슘스코어링) ■ 경동맥초음파 +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여) + 저선량 흉부CT + 위/대장 수면내시경 ■ 동맥경화 + 호르몬 균형검사 ■ 뇌 MRI + 뇌 MRA + 면역유형검사 ■ 전립선 정밀암표지자 ■ 닥터눈(AI 심혈관 위험도 평가) ■ 호모시스테인 + 지능헬스 유전자검사 ■ 13종(암 5종, 일반질환 8종)평가



심장 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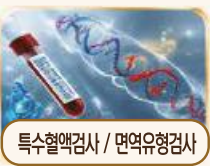
뇌 MRI + 뇌 MRA



저선량 흉부 CT



위/대장 수면내시경



특수혈액검사 / 면역유형검사



경동맥초음파 / 동맥경화 검사



닥터눈(AI 심혈관 위험도 평가)

심장정밀 특화검진

종합검진시 심장정밀 특화검진을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65만원



- 심장CT(칼슘스코어링) ■ 심장초음파 ■ 경동맥초음파
- 동맥경화 ■ 호모시스테인 ■ 닥터눈(AI 심혈관 위험도 평가)

뇌정밀 특화검진

종합검진시 뇌정밀 특화검진을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90만원



- 뇌 MRI ■ 뇌 MRA ■ 경동맥 초음파 ■ 동맥경화
- 호모시스테인 ■ 닥터눈(AI 심혈관 위험도 평가)



GC녹십자아이메드 검진센터
강남의원 · 강북의원 · 서울숲의원



편리한 각 지역
최적의 접근성



전문의료진의
정밀한 진단



검진 후 사후관리
및 맞춤 상담



— 정확한 검진 · 신뢰할 수 있는 의료 · 건강한 미래 —

서북미 본부장 **에스터 나**

Tel: **206-779-5382**

skgid7700@gmail.com

검진 프로그램, 비용, 예약 가능일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KSC 시애틀, 2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7월 10일 개최...매릴린 스트릭랜드 연방하원의원 경제 세션 진행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K-Startup Center Seattle · KSC Seattle)이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2026년 2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월 10일(금) 오전 11시~오후 12시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KSC 시애틀 서관 1층(1731

Minor Ave., Seattle)에서 열리며, 한인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미국 경제 동향과 비즈니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서은지 주시애틀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최근 경제 동향 브리핑에 이어 워싱턴주 제10선거구를 대표하는 매릴린 스트릭

랜드(Marilyn Strickland) 연방하원의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경제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오찬이 마련돼 기업인과 관계기관 간 네트워킹의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KSC 시애틀은 이번 행사가 서은지

총영사가 참석하는 마지막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미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인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온라인 참가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차는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행사 주최 측은 인근 주차장 이용을 위해 SpotHero 앱 활용을 권장했다.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 조차 마케팅·프로그램 매니저(360-918-6577)에게 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하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1 또는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됩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i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올 부동산 (구) 태양 since 2002 Year (RealtyAll.com)



주택/아파트/상가/모텔/호텔/주유소/그로서리/식당/세탁소/각종 사업체/땅/부동산 건물 관리
고객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6.228.4989
도병호 대표 Broker
Brian Do
briando@realtyall.com



253-205-5553
도은영 Monica Kim
eunyoung@gmail.com



김 원현	206-370-2382	이 은영	206-377-9192	HANNA LEE	253-365-8324	KIM,JONG G	206-852-9855
이 순열	253-335-1965	이 덕기	206-229-7407	이종성	509-863-6212	KIM,MYUNG JOON	206-228-4989
제니퍼 오	206-228-0591	KIM, ARTHUR J	206-859-9988	김용규	206-335-8949	KIM, LOUIS	253-722-3067
이 내권	206-793-0822	KIM, VERONICA	206-436-4989	부진실	253-905-2772	TERRY CHOI	213-220-7220
이 영철	253-777-6714	황 인성	206-306-4336	김강식	206-949-6197	www.realtyall.com 에서 리스팅을 확인!	
정 정이	206-200-1444	엠마 박	206-688-0780	ROBERT KIM	253-576-3939		

▶ **올부동산과 함께할 에이전트(Broker)를 모집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김원현 Won Kim
206.370.2382
wonkim1974@hotmail.com

Veronica Kim / 206-235-5353
베로니카 김 / veronicavk0101@gmail.com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테리야기 / 음식점

- 1. 테리야끼 \$550,000 일매상: \$4,000
- 2. 테리야끼 \$530,000 일매상: \$3,500
- 3. 테리야끼 \$230,000 일매상: \$1,700
- 4. 테리야끼 \$280,000 일매상: \$2,300
- 5. 테리야끼 \$180,000 일매상: \$2,000
- 6. 테리야끼&Sushi \$50,000 일매상: \$1,000 (Owner Carry 가능)
- 7. 테리야끼 \$790,000 일매상: \$2,200 (부동산포함)
- 8. 일본식당 \$820,000 일매상: \$2,400 (부동산포함)

Grocery

- 1. \$105,000 월매상: \$55,000
- 2. \$280,000 월매상: \$65,000
- 3. \$300,000 월매상: \$80,000
- 4. \$490,000 월매상: \$95,000
- 5. \$600,000 월매상: \$110,000
- 6. \$100,000 월매상: \$45,000 (Owner Carry 가능)

Motel

\$1,490,000 Year Income \$430,000 (Room: 29)

상가건물

\$2,900,000 CAP: 6%



황규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정진호 박사의 강연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청포도의 꿈, 청진과 포항을 쇠물로 잇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민주평통, 지난달 30일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성황리 개최 "포항 이육사 · 청진 운동주 시인 서사 미래 평화경제 구상으로 발전시켜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벨뷰 시청에서 정진호 박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청포도의 꿈'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제22기 민주평통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아래 마련됐으며,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가 주최하고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UniBank가 후원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황규호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장의 개회사, 박미조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이수잔 상임고문단장의 축사, 강연자 약력 소개, 정진호 박사의 특별강연, 질의응답,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창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오영규 회장이 맡았다. 황규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강연이 남북경제협력의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연 부제인 '청포도의 꿈'에 대해 "청포도에는 분명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강연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박미조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평화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아니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 곳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시애틀 동포사회가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해 온 모습은 평화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진호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박미조 부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수잔 상임고문단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오영규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이수잔 상임고문단장은 "청포도는 아직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며 가능성과 기다림,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고 있는 열매"라며 "평화통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진호 박사는 평화경제 · 통일 분야 전문가이자 포스텍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 · 석사 · 박사 과정을 거친 뒤 미국 MIT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부총장 및 박사원장, 토론토대학교 통합통로 교수, 한동대학교 통합한국센터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경제과학분과 상임위원, 통일부 평화통일고문회의 정책자문위원, 유라시아 원이스트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박사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바라본 코리아연합과 남북경제협력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를 한마디로 '청포도의 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항에는 청진리가 있고, 청진에는 포항동이 있다"며 "남한의 대표적인 제철도시 청진 포항과 북한의 대표적인 제철도시 청진 포항을 잇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 청포도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포항의 이육사 시인과 청진의 운동주 시인을 연결해 설명하며 "두 저항

시인의 서사를 오늘의 현실로 끌어와 미래의 평화경제 구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청포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경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특히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철천지원수였지만,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면서 전쟁을 멈추고 결국 유럽연합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남북한도 철강 공동체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무산의 풍부한 자철광 자원과 남한의 친환경 제철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무산에는 남북이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철광석 자원이 있고, 남한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세계적 제철 기술이 있다"며 "청진에 남북이 함께 스마트 그린 제철소를 세운다면 한반도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또 "탄소국경세와 친환경 산업 전환 시대가 다가오면서 기존 제철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소환원 제철 등 친환경 제철 기술은 앞으로 세계 산업 질서를 바꿀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청포도 프로젝트는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

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정 박사의 개인적 경험도 소개됐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안정적인 연구자의 길을 뒤로하고 중국 연변과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 조선족 청년들과 북한 청년들을 가르친 경험을 전했다. 그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이야말로 가장 더디지만 가장 빠른 변화의 길이라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특히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남한 출신 학생과 북한 학생, 해외동포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며 가까워지는 모습을 소개하며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젊은 세대는 함께 공부하고 농구, 축구, 배구를 하면서 친구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남과 북의 다음 세대가 서로 원수가 아니라 친구와 동무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국제정세도 폭넓게 짚었다. 그는 식민, 분단, 전쟁, 독재, 이산으로 이어진 민족사의 상처를 언급하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화와 통일의 길도 제대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AI와 제조업 재편 등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디지털과 퍼지컬, 즉

AI와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드문 나라"라며 "남북이 협력한다면 동북아의 새로운 골든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남한의 기술, 북한의 자원, 해외동포의 네트워크가 함께 결합될 때 새로운 코리아연합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서 정 박사는 참석자들에게 "청포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강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 상품"이라며 "이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참석자들과 함께 "가자 청진으로, 오라 포항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진호 박사는 『울독 아리랑』, 『21세기 중학교 12도시 인문학이 만난 때』,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호-서북 지역 갈등 및 선교지 분할』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공학기술, 기독교 인문학, 통일과 역사 분야를 아우르는 통섭적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시애틀 한인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재외동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감대를 넓히고 미래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재영 기자**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모습.



지병주 밴쿠버 한인회장.



올가 밴쿠버 시장.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6.25 기념행사 개최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 27일 한국전 참전용사비서 6·25 76주년 기념식 개최
참전용사들과 매커너니-올가 밴쿠버 시장·지병주 밴쿠버 한인회장 등 참석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회장 지병주)는 지난달 27일 밴쿠버 보훈병원 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6·25전쟁 7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앤 매커너니-올가 밴쿠버 시장과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병주 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결코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준 우방국들의 희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전쟁에서 희생된 장병들과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추모했다. 특히 참전용사와 가

족,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한 추모식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앤 매커너니-올가 시장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밴쿠버한인회는 앞으로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참전용사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J-1 · H2B · EB3

취업스폰서를 모십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사업체 운영에 믿고 신뢰할 직원을 원하십니까? 수시로 직원 부족으로 고용주가 대신 일해야 하는 고민을 글로벌 인재 양성 리쿠르먼트 회사 Entryusa.co 에서 해결해드립니다.

▶ **자격기준:** 현 사업체가 워싱턴주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세금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체 종류:** 호텔, 식당, 그로서리, 스모크 샵, 세탁소, 유통 회사, 전기 및 전화 회사, 델리 및 제과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용 및 네일, 스킨케어, 회계사무직, 법률사무직,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연락은 먼저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mynwcf23@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후 직접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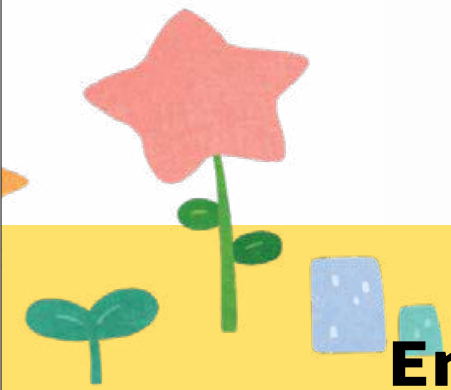
워싱턴주 유일의

한국어 방송

라디오한국이 달라져요!

27주년을 맞은 라디오한국이
뉴스, 정보, 음악중심으로
편성표를 대폭 개편합니다!

KSUH 1450 AM
KWYZ 1230 AM
FM 102.1 MHz



Tel 253-815-1212
Email : info@radiohankook.com
31919 1st Ave S, suite 206 Federal Way, WA. 98003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들이 제19기 정기이사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훈 이사장이 조기승 전 회장을 신임이사장을 추대하고 있다.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기승 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인의 날 축제재단, 새 이사장에 조기승 전 광역시애틀한인회장 선임

김성훈 이사장 연임 고사, 조기승 전 회장 직접 추대...7월부터 2년 임기 시작 오는 8월 16일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서 한인의 날 축하 문화공연 개최 예정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이하 재단)이 차기 이사장으로 조기승 전 광역시애틀한인회장을 추대했다.

재단은 6월 27일 페더럴웨이 소재 김성훈 이사장 사무실에서 제19기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는 7월부터 2년간 재단을 이끌 신임 이사장으로 조기승 전 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성훈 현 이사장의 연임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 힘들 것 같다"며 이를 사양하고, 스스로 조기승 상임이사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이후 다른 추천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사진 동의로 선출이 확정됐다.

조 신임 이사장은 "이사회 이전부터 제안을 받아 윤전을 하며 오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다른 훌륭한 분이 계시면 양보하려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해주시니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 한인사회 다방면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

조기승 신임 이사장은 광역시애틀한인회장, 재미 워싱턴주 대한체육회장, 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다. 공인 태권도 9단으로, 1995년부터 린우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현역 체육인이기도 하다.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조 신임 이사장은 "대회장과 준비위원장은 7월 중순을 넘기며 여러 분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진들은 뒷바라지를 자처한 김성훈 이사장에게도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 이사장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 재단 잔고 약 9만 달러...2년 임기 동안 재정 안정 유지

이날 이사회에서는 백정선 재무의 재무보고도 이뤄졌다. 6월 27일 현재 운영 구좌 잔고는 1만 4,928달러, 상임이사 세이빙 잔고는 7만 5,472달러로, 이자 수입 7,159달러를 포함한 전체 총액은 약 9만 401달러로 집계됐다. 재단의 재정은 김성훈 이사장이 2년 전 인수

했을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나래공연과 연계해 열린 한인의 날 축하공연 관련 후원금 수령 및 집행 경위에 대해서도 이날 재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됐다. 재무담당은 재단 고유의 운영 자금은 해당 행사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행사 목적으로 별도 수령한 후원금만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8월 16일 페더럴웨이서 문화공연... 봉산탈춤·비보이 무대 선다

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에서 한인의 날 축하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젊은 봉산탈춤 공연단이 참여하며, 박재범과 인연이 있는 비보이 크루와 최근 활발한 활

동을 이어온 AKA(America K-Pop Association) 산하 VDC 크루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은 무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홍보 포스터 디자인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인의 날 행사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포스터를 수정하기로 했으며, 단체명은 한 줄로 정리해 가독성을 높하기로 했다. 또 공연장 명칭은 한국어 번역 없이 영문 원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김성훈 이사장은 2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1월 13일 행사를 1년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계기로 한인사회를 알리고 싶었다"며 "재단 이사진과 준비위원, 한인사회 모든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기사·시애틀코리아데일리 김승규 기자)

트럼프 얼굴 박힌 미국 여권 공개... "건국 기념" vs "셀프 우상화" 논란

- ▶ 현직 대통령 얼굴 여권 삽입 미국 역사상 최초...2만5천~3만 부 한정 발급
- ▶ 민주당·시민단체 "국가 상징 정치 도구화" 강력 반발...외국 정부도 우려
- ▶ 표지 디자인 변경·금색 서명·독립선언문 배경...7월 6일부터 워싱턴 DC 여권 사무소서 발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한정판 여권 디자인을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올바로 행동하세요 (be good!)"라는 문구와 함께 레졸루트 데스크 앞에 선 트럼프의 모습, 독립선언문 원문, 금색 서명이 새겨진 이 여권은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미국 공식 여행 문서에 실리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사례다. 발표 직후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이 여권이 "미국 여권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문서로 만드는 동일한 보안 기능을 유지하면서 맞춤형 아트워크와 강화된 이미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7월 6일부터 워싱턴 DC 여권 사무소에서 직접 갱신하는 신청자에게 기본 발급되며, 온라인 신청이나 다른 지역 여권 사무소에서는 기존 디자인이 유지된다. 발급 수량은 2만5천~3만 부로 제한된다. ◆ "국가 상징을 개인 홍보물로"...민주당·

시민단체 강력 반발 비판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국가 상징의 노골적인 사유화"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여권은 공화국의 상징이지 특정 정치인의 홍보 도구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국가 문서에 현직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삽입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가 사용해온 방식"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국가 문서에 특정 인물의 초상을 넣은 것 자체가 전례 없는 권력 과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여권 내지에는 그동안 독립전쟁 관련 역사 그림이나 미국 자연 풍경 등 중립적인 상징물만 담겨왔다. 현재 기존 여권 내지 앞면에는 버시 모란의 그림 '포트 맥헨리 포격 다음 날 아침의 프랜시스 스콧 키'가 실려 있다. ◆ "올바로 행동하라" 문구...입국 심사 강화 기조와 맞

닿아 외국인 불안 자극 트럼프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직접 언급한 "올바로 행동하라 (be good!)"는 문구도 도마에 올랐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입국 심사 및 외국인 단속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여권 공개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수십만 명의 외국 방문객이 미국을 찾는 시기와 겹친다. 외국 정부 일각에서는 자국민 여행자들이 이 문구에서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여권은 미국이 환영하는 나라라는 인상보다 경계심이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이민·난민 지원 단체들도 이 문구가 이미 심화된 이민자 혐오 분위기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국장 위치·표지 서체까지 바꿨다"...디자인 변경도 논란 여권 외관



디자인도 기존과 달라져 논란이 됐다. 표지에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상단에 굵은 금색으로 크게 박혔고, 기존에 중앙에 있던 문구는 하단의 '여권(Passport)'으로 대체됐다. 내지에는 스미스소니언 국립 초상화 갤러리 공식 초상화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의 모습이 독립선언문 원문 위에 얹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존 트럼볼의 유명 역사화 '독립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 담겼다. 표지와 내지 전반에 '미합중국 250(United States of America 250)' 브랜딩도 삽입됐다. 역사학자들은 트럼프의 얼굴이 건국의 아버지들과 독립선언서를 시각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건국의 아버지 반열에 놓으려는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여권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담긴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 출시와 함께 대통령의 얼굴을 국가 상징물에 삽입하는 행정부의 일련의 흐름 중 하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념 여권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기념일에 맞춰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수집 가치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또한 국무부가 기존 여권과 동일한 보안 기능을 유지했다고 밝힌 만큼, 실용적 측면에서의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린우드에 위치한 에스테틱 샵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파격적인 가격에 양도합니다.

몸만 들어오면 바로 운영 가능!

비즈니스 매매

린우드 뷰티샵 스튜디오 급매 - \$25,000 (장비 풀세트 포함, 즉시 운영 가능)

현재 구비된 최신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25,000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포함하여 넘겨드립니다!

<p>📍 위치 린우드 (Lynnwood, WA)</p>	<p>💰 희망 양도가 \$25,000 (권리금 및 장비 포함)</p>	<p>🏠 상태 즉시 운영 가능 풀세팅 완료!</p>
---	--	---

포함내역 독일제 전신 레드라이트 테라피(Red Light Therapy) 기기
한국산 최신 초음파 페이스 리프팅(Ultrasound Facial Lifting) 기기
기타 샵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테리어 및 집기 (Turn-key)

특이사항 몸만 들어오셔서 바로 운영 가능한 풀세팅 상태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나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기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25 561 7866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권 논란 재점화

유권자 신분증 · 시민권 증명 요구 확대... 전문가들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
"소수계 · 저소득층 투표 장벽 우려... 거주지별 선거 규정 반드시 확인해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요건을 강화하면서 합법적인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표권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변화와 함께 주별로 달라지는 선거 규정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거주 지역의 투표 요건과 등록 절차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26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중간선거가 연방 의회는 물론 주정부와 지방정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 방어교육기금(MALDEF)의 토머스 A. 사엔즈 회장 겸 법률총괄, 보트라이더즈(VoteRiders)의 김다해 정책호호 매니저, 캘리포니아 지역 독립언론 사스타스 카웃(Shasta Scout)의 애널리스트 피어스 창립자 겸 편집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정보 확

산과 신분증 요건에 대한 혼란, 잦은 선거 절차 변경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엔즈 회장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허위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다해 매니저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유권자들이 투표 직전에 필요한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라며 "신분증에 현재 거주지와 이름 등 최신 정보가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편집장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와 카운티의 선거 규정, 투표 일정,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38개 주가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와 관련 규정이 주마다 다르고 변경도 잦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혼란을 겪거나 투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매니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유권자 신분증법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문제없이 투표해 온 유권자들에게도 새로운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특히 시니어와 청년층은 복잡한 절차나 투표 거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트라이더즈 자료에 따르면 투표 연령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 가운데 약 2,100만 명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약 2,900만 명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변경된 이름이나 새로운 주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권 증명 요구 확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주와 연방정부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출생증명서나 여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매니저는

"미국 시민 가운데 약 2,100만 명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즉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 가운데 약 400만 명은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규정은 결국 수백만 명의 합법적인 유권자를 투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투표 연령 시민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최신 정보가 반영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층 가운데 35%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며, 300만 명 이상은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교통 접근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신분증 발급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농촌 지역 주민들은 관공서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신분증을 분실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매니저는 "미국에서 유권자 사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현재의 선거법만으로도 미국 시민만 투표하도록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칼레이스 대 루이지애나(Callais v. Louisiana)' 판결도 주목해야 할 사례로 꼽았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로 소수계 유권자가 다수인 선거구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구가 바뀌더라도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 주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과 투표 방식, 신분증 요건이 모두 다른 만큼 반드시 거주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사스타카운티 사례를 소개하며 선거제도의 잦은 변화가 유권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스타카운티는 최근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Measure B' 역시 유권자 명부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피어스 편집장은 "선거는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의 문제"라며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유권자들이 새로운 절차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2026, 4일간 264억달러 매출...역대 최대 기록

- ▶ 6월 23~26일 4일간 진행...미국 온라인 소비 264억달러, 전년 대비 9.3% 증가
- ▶ 모바일 결제 54.2%로 사상 최고, AI 쇼핑 트래픽 전년 대비 89% 급증
- ▶ 건당 평균 주문액은 전년 대비 감소...BNPL 21억달러로 9.5% 늘어 가계 부담 신호

아마존의 연례 최대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Prime Day) 2026'이 6월 26일(현지시간) 자정 공식 종료됐다.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가 리테일 다이브(Retail Dive) 등 매체에 공개한 최종 집계에 따르면 행사 기간(6월 23~26일) 미국 내 온라인 소매 총 매출액은 264억달러(약 36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 4일간 264억달러...블랙 프라이데이·사이버 먼데이 압박 올해 프라임데이는 통상 7월에 열리던 행사를 6월로 앞당겨 FIFA 월드컵,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등 소비 대목 이전에 배치했다. 행사 첫날인 23일 하루에만 83억달러(약 11조5,000억원)가 지출되며 2026년 들어 단일 최대 전자상거래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25년 추수감사절(64억달러), 블랙 프라이

데이(118억달러)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로, 여름 쇼핑 시즌이 연말 대목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Telsey Advisory Group)은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 기반과 소규모 사업체와의 관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테고리별로는 전자제품(평균 일일 판매 대비 120% 급증)과 가전(90%)이 매출을 이끌었으며, 공구·인테리어(70%), 홈·가든(65%), 가구·침구(5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류 할인율은 24%, 전자제품은 24%, 생활가전은 16%, 완구는 20%로 전년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 모바일·AI 쇼핑 사상 최고치...소비 패턴 변화 뚜렷 이번 프라임데이에 모바일 결제 비중은 5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며 142억달러의 매출을 견인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쇼핑 트래픽도 전년 대비 89% 급증했으며, AI 유입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다른 채널 대비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라임데이에 AI 트래픽 전환율이 23% 낮았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소비자 조사기관 뉴메라이터(Numerator)의 최종 집계(6월 26일 오후 4시 기준)에 따르면 가구의 63%가 행사 기간 2건 이상 주문을 했으며, 평균 가구당 지출액은 143.45달러였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프리미어 프로틴 셰이크(Premier Protein Shakes), 리퀴드 아이비비 팩킷(Liquid I.V. Packets), 템테이션스 캣 트리트(Temptations Cat Treats) 순이었다. 구매 상품의 69%가 20달러 미만이었으며 100달러 이상 제품은 3%에 그쳤다.



[사진=AI생성이미지]

◆ 평균 주문액 감소·BNPL 급증...소비자 부담 신호도 매출 총액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소비자 개별 지출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건당 평균 주문액은 47.66달러로 지난해(53.34달러)보다 약 11% 감소했다. 관세 압박으로 판매업체의 할인 여력이 줄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후불 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이용도 뚜렷하게 늘었다. 어도비에 따르면 BNPL 주문은 전체 온라인 주문의 6.6%를 차지하며 21억달

리에 달했고,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이어가면서도 가계 부담을 분산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천(Fortune)은 "기록적인 프라임데이 이전에는 더 많이 지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덜 얻는 소비자의 씀씀이 현상이 담겨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6개국 프라임 회원이 참여했으며, 호주·브라질·인도·일본에서는 올해 여름 별도 일정으로 행사가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 Washington Korean Mission Choir —

🎵 모집대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 누구나

🎼 연습안내

🕒 연습 시간: 매주 주일 오후 5~7시

📍 연습 장소: 시애틀물댄동산교회

17620 60th Ave W, Lynnwood, WA 98037

📄 지휘 | 허정덕 목사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합창지휘 전공)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창지휘 박사 과정 수료
- 現 시애틀물댄동산교회 담임
- 現 동지선교회 남쪽방송 Service Director



☎ 문의

조현숙 총무: 509-859-2844

37년 전통의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이 허정덕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1989년 창단)

이성수(수필가·서북미문협회원)

뽕나무열매 오디

일제강점기 때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녔다. 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봄이 가고 첫여름이 오면 앵두며 오디가 열렸다. 우물가에 탐스럽게 열린 앵두는 빨간색으로 나무를 온통 뒤덮었다. 나는 앵두가 익자 그것을 따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콤달콤한 앵두 맛은 간식거리가 없던 그 옛날 일미(一味)였다. 때를 같이하여 오디가 열렸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이다. 오디를 충청도 사투리로 '오디게'라고 부른다. 뽕나무가 귀했던 그 시절 우리 마을은 아주 흔했다. 우리 마을의 흙은 사질양토(沙質壤土)이다. 사질양토란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아 작물이 잘 자라는 흙이다. 일제가 실크를 양산하느라 누에를 쳤는데 뽕나무를 많이 심어야 했다. 그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아주 흔하게 열렸다. 오디 맛은 앵두 맛에 비할 바가 없었다. 나는 오디를 먹은 후로는 앵두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어머니는 앵두를 따서 열심히 나에게 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에 밥만 싸 가느니 앵두를 싸 가면 어떨까?"고 물었다. 나는 창피하다며 반대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은 다른 때보

다 목직했다. 열어 볼까 하다가 말았다. 점심 시간이 돌아왔다. 일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다. 담임선생님도 학생들과 같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였다. 나는 도시락을 여는 순간 놀랐다. 밥이 아니고 싱싱한 빨간 앵두만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반 애들 보기가 창피해서 도시락 뚜껑을 열른 닫고 앉드려 울었다. 이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던 담임선생님은 내 곁으로 가까이 와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사연이 수상해서 "미야모도 세이 슈(宮本性洙) 군! 왜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있니?" 일본식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그리고 도시락을 열었다. 선생님은 그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앵두가 가득히 들어 있는 나의 도시락을 보고 놀랐다. 선생님은 앵두가 무척이나 먹고 싶어 "이 군! 나의 도시락하고 네 도시락을 바꿔 먹자."라고 말하고 선생님의 도시락을 나에게 주고 앵두 도시락을 가져갔다. 나는 앵두가 맛이 없어 먹기 싫었는데 선생님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의 도시락은 밥을 담은 이외에 찬합이란 네모진 그릇에 계란프라이,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등이 들어 있었다. 나는 점심을 싸

오지 않은 반 애에게 나누어 주었다. 선생님의 도시락은 반찬이 많아 반 애와 같이 나누어 먹어도 배가 불렀다. 선생님은 앵두를 실컷 먹고, 나는 선생님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 나는 선생님의 도시락을 반환하면서 "선생님!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였다. 선생님은 앵두를 잘 먹었다고 말하고 집에 앵두가 많이 열렸느냐고 묻기도 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오늘 점심시간에 앵두를 싸 주어 창피했어요. 다행히 선생님의 도시락하고 바꾸어 먹었어요." 어머니는 좋아했다. 나는 우물가에 지천으로 열린 앵두를 따 먹느라 조잘대는 내 또래의 여자애들에게 "이 애들아! 너희들 오디 따 먹어 봤니?" "오디가 뽕나무 열매인 것을 알지만 아직 먹어 보지 못했다." "나를 따라오면 오디 열매 맛을 볼 것이다." 나는 여자애들을 데리고 뽕나무밭으로 향했다. 뽕나무에는 앵두의 10배나 큰 오디가 소담스럽게 열려 있었다. 나는 초록, 분홍, 까만색으로 열려 있는 오디 중 익은 까만색 오디를 한 줌 따 입에 넣었다. 오디의 단맛과 풍미가 입안으로 퍼져 갔다. 여자애들도 오

디 맛에 반했다. 앵두 맛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오디 맛에 넋을 잃고 있었다. 여자애들 입안이 오디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오디를 따 먹었다. 그리고 오디를 따로 모았다. 담임선생님에게 주고 싶어하였다. 월요일에 어머니가 오디를 도시락에 담아 주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오디 도시락을 선생님에게 주고 선생님의 도시락을 받았다. 선생님은 오묘한 오디 맛에 반하고 말했다. 앵두의 허접한 맛과는 상대가 안 되는 오디 맛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보는 오디라고 했다. 일제가 처음 심은 뽕나무에서 열린 오디이기 때문이다. 오디 맛에 반한 선생님은 도대체 이런 열매가 어느 나무에 열리느냐고 물었다. 나는 실크(비단)를 만드는 뽕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했다. 나는 그 후 오디를 따서 자주 선생님에게 선물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실크를 짜기 위해 뽕나무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열매인 오디가 세상에 선보인 때의 일이다. 나는 지금도 오디의 달달한 그 맛을 잊지 않고 있다.

PSE 전기요금 2년 새 45% 폭등...워싱턴주 한인 가정 '비상'

- ▶ 2년 새 45% 폭등...월평균 요금 110달러→160달러로
- ▶ 청구서 불만 민원 3,800건 폭주...소비자 보호 논란
- ▶ 추가 인상 예고..."2027~2029년에도 계속 오른다"

워싱턴주 최대 민간 전력회사인 퓨젯사 운드에너지(PSE)의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서부 워싱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브레타데언에 사는 케라 마우스키는 지난 겨울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분납 계획을 신청했다. 여섯 식구가 실내 온도를 60도 초반(화씨)으로 낮추고,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불을 끄며 절약했지만 역부족이었다. 3월에 날아온 청구서는 약 800달러. 현재 미납액이 1,400달러에 달하는 그는 "이렇게 가난해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든 나아지려 해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2년 새 45% 폭등...10년 전 요금의 두 배 PSE는 워싱턴주 최대 전력회사로 주로 서부 워싱턴 지역의 전기 소비자 약 12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 회사의 전기요금은 불과 2년 사이 45%나 급등했다. 월 800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하는 평균적인 가정의 월 요금은 110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랐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워싱턴주 공공 전력회사인 시애틀 시티 라이트(Seattle City Light)의 동일 사용량 기준 월 요금(약 123달러)보다도 높다. 이처럼 요금 인상이 정점에 달하자 워싱턴주 공익사업교통위원회(UTC)에는 올 1월 이후 소비자 불만 민원이 3,800건이나 접수됐다. UTC는 지난해 12월 PSE의 요금 인상 요청을 승인해 2026년 1월부터 전기 소비자에게 약 12%, 월평균 17달러의 추가 인상이 적용됐다. ◆ 왜 이렇게 올랐나...기후 대응 비용이 소비자에게 요금 급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전력 수요

증가와 노후 송전망,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인건비 상승 등 운영 비용 전반이 올랐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수력발전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졌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도매 전력 가격 급등도 회사 비용을 압박했다. 워싱턴주가 2019년과 2021년 야심 찬 청정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한 것도 큰 요인이다. PSE는 석탄·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높아 이를 줄이고 풍력·태양광·배터리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다. 더불어 2022년부터 도입된 새 요금 산정 방식이 미래 비용을 선반영해 요금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주 검찰 소비자보호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보다 전력회사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



[그림=시생성이미지]

했다. ◆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2029년까지 계속 오른다 문제는 요금 인상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PSE는 올 2월 추가 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규제 당국이 이를 승인할 경우 평균 소비자 기준으로 2027년 월 28달러, 2028년 월 7달러, 2029년 월 16달러가 추가로 오르게 된다. PSE 측은 "2030년 청정에너지 전환 기한이 다가오면서 상당한 수준의 요금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편 시애틀 시티 라이트 역시 최근 향후 2년간 각각 9.5%의 요금 인상을 발표해, 서부 워싱턴 전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PSE와 달리 도시 공영 전력회사인 시티 라이트의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식료품과 의료비에 이어 높아진 휘발유 가격(갤런당 5달러 이상)과 맞물려 워싱턴주 생활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교육칼럼



민명기

eWay 학원 원장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는 여러모로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주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이 빼어나 동부의 친구들이 오면 정말 부러움으로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스타벅스와 같은 많은 대기업들의 본부가 있고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미국 최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사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좀 감추고 싶은 것들도 없지 않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메트로폴리탄 시애틀 지역은 기독교인이 44 퍼센트대밖에 안 되는 도시라 참 척박한 도시로 여겨진다. 시애틀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와 더불어 가장 기독교인이 적은 도시라고 한다. 또 다른 비자랑거리. 최근 웰렛허브라는 정보 업체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워싱턴주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비율이 부담 순위에서 돈이 많이 들기로 다섯 번째에 속하는 주로 조사되었다는 소식이다(네브래스카,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주의 순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센터형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길 경우, 소득의 13퍼센트 정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

는 41퍼센트가 든다고 한다. 부모 중 하나는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 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맞닥뜨리는 다른 고민 사항이 기다리고 있다. 애독자 여러분이 한인 마켓에서 이 칼럼이 실린 신문을 집어 드시는 7월 초순이 지나고 곧 8월 1일이 되면 미국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이 사용하는 공통 원서가 열린다. 하지만 이 칼럼을 읽으시며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고민하며 초조해질 필요는 없다. 아직도 조기 전형 마감일까지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통 원서(Common App) 플랫폼에 들어가 이들 원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에세이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약 1시간 반 정도 내외에 마칠 수 있는 분량이다. 가족이나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들과 출신 학교, 성적 등 비교적 즉답할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이와는 달리, 각 대학의 원서들에서 가장 시간과 정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단연 대입 에세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에세이가 문제인 것이다.

공통 원서의 경우, 필수로 요구하는 250~650단

어 정도의 에세이와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이 요구하는 보충 원서 에세이(약 150~300단어 내외) 두세 편, 많게는 다섯 편 이상을 추가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고교 주니어인 11학년 때 수강하는 AP Language and Composition 클래스에서 미리 연습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원서에 필요한 에세이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가 자신이라면 오늘 당장 에세이 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과연 대입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할까?

글쓰기라는 힘든 일을 생각하노라면 독자들에게서도 잘 아시는 재미동포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떠오른다. 예일대학교 재학 중에 처음으로 구상한 『파친코(Pachinko)』를 지난 2017년에 출판했는데, 완성에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하니 한 문장이라도 고치고 또 고치는 스타일이다. 몇 년 전 한 한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것처럼, “아버지가 붙여준 별명이 거북이다. 늘 느리고 먼 길로 돌아간다.” 이 작가는 글을 쓰는 이유가 “삶이 싫기 때문이다. 나는 54세 착한 ‘아줌마’지만 혼돈과 불공평으로 얼룩진 세상을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인 글로 불의에 맞서기로 결심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정도의 단호함은 아니더라도, 대입 에세이를 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그저 대충이 아닌 자신에 대해 좋은 글을 쓰려는 이유 있는 결심은 있어야 하리라. 물론 이러한 결심에 걸맞도록, 대입 에세이를 쓰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고치고 또 고쳐 적어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에세이를 완성하기를 바란다. 특히 근래에 SAT/ACT와 같은 표준시험이 필수로 복귀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선택 사항으로 사용하는 학교들에서도 시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는 하지만, 지난 해부터는 인종을 입학 사정에서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입 에세이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대입 에세이를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고민하며 마음고생이 많은 시니어들을 위해 USA Today가 펴낸 글, ‘입학 사정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에세이 쓰는 요령 9가지’는 필자가 보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 때마다 소개하는데, 올해도 시기 적절하다 여겨 여기 간단히 필자의 의견과 대학 입학처장들의 의견을 가미한 시리즈를 다음 주에 시작한다.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www.ewaybellvue.com)



큰 뜻과 보람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부인회 간병인(Caregiver) 모집!

경쟁력있는 임금 \$22.63-\$26.97

**좋은 베니핏 - 의료보험, 유급휴가
자유로운 근무 시간 - Full Time, Part Time
근무중 자동차 운행비 지급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KWA 본사와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53)535-4202 / www.kwacares.org/careers



〈타코마〉 실비아 리 (253)319-8646 sli@kwacares.org, 김혜연 (253)319-8652 hykim@kwacares.org

〈린우드〉 리나 정 (425)790-3565, (253)302-0202 lchong@kwacares.org

〈헤더럴웨이〉 이경주 (253)656-3458 klee@kwacares.org, 송영정 (253)656-3445 ysong@kwacares.org

박상원목사의 동족선교칼럼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통일은 이미 시작된 과정이다」 ③

왜 미주 디아스포라인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4:14) 광활한 미국 대륙에서 이민 사역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동역자들과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미국 땅에 계시면서 북한 선교를 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북한 땅은 휴전선 너머 한반도의 북녘에 있고, 내가 숨 쉬는 이곳 미국은 푸른 태평양을 수만 리 건너야 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말입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지리적 조건만 따진다면 미주 대륙은 북한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멀리 떨어진 외딴섬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19년 동안 미주 전역을 발로 뛰며 눈물로 북한 선교의 제단을 쌓아오면서 가슴 깊이 가진 우주적인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종종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사람’들을 들어 가장 가까운 곳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도도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주류 세력이 타락했을 때, 언제나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백성들, 즉 ‘디아스포라’를 택하여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역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모진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 끝으로 흩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처절한 피난과 도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강제적인 ‘흩어짐’이야말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뻗어 나가는 거룩한 성령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는 단지 고국을 떠나 낯선 타국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외로운 이민자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위해,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온 열방에 전략적으로 흩어놓으신 하늘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오늘날 이 광활한 미국 땅에 세워진 미주 한인 교회와 디아스포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조국 한반도의 핏줄과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와 성숙한 시민사회의 선진 시스템을 온몸으로 호흡하고 경험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어머니의 언어와 영어라는 세계적인 언어를 자유롭게 소통하며, 뜨거운 한국적인 영성과 합리적인 서구 문화를 융합해 낸 축복의 세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독특하고 절묘한 영적 좌표에 세우심으로써, 남과 북의 끊어진 허리를 잇고 세계 교회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룩한 ‘연결자(Bridge Builder)’로 부르고 계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19년의 세월 동안, 저는 한반도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미국 전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구석구석에 숨겨진 한인 교회들을 방문하며 통일의 불씨를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사역 초기에는 이민 생활의 고단함에 지친 성도들에게 머나먼 한반도의 통일 이야기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박제된 구호처럼 취급받기 일췌였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이념의 정치 논리를 걷어내고, 저 북녘 땅에서 하루하루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날 것 그대로의 비참한 삶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핏빛 신앙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굳어 있던 가슴은 일시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차가운 정치가들의 권력 암투가 아니라, 살아서 숨 쉬는 ‘사람의 이야기’에 가슴을 찢으며 반응했습니다. 자유롭게 창조주 하나님을 목놓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 국경 너머에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 평생 성경책 한 권을 손에 쥐어보는 것이 소원인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어린아이들이 단 한 조각의 빵이 없어 길거리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들을 때, 미주의 교회들은 비로소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눈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차가운 외교 테이블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형제를 향한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은 언제나 거대한 체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영혼’을 향해 흐른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특히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열방의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사적이고 독특한 플랫폼 위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문명의 심장부이자 국제적인 무대 위에서 한반도 복음 통일이 지닌 인류사

적 가치와 영적 의미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고 알릴 수 있는 자유의 메신저이며, 다음 세대들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심어 줄 수 있는 영적 거목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 이 땅에서 아낌없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저 땅에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숨쉬는 내 동족을 위해 거침없이 복음의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거룩하고도 준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상의 어떤 거대 정부나 탁월한 정치가의 지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눈물로 무릎 꿇는 교회, 고통받는 형제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과감히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마침내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에 흩어놓으신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반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새벽의 부르심은, 오늘도 태평양을 건너 우리의 잠든 영혼을 향해 거세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신문



MEDIA GROUP CORP.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위로 언니가 돌아와 되고 오빠들이 많은 막내인 나는 어릴 때부터 내게 제대로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첫 번째 이유는 막내오빠와 오빠들 친구를 따라서 세검정, 자하문, 사직동, 인왕산, 청와대 뒷산으로 뛰어다니니 신발이 쉽게 닳아버려 엄마의 생각에는 바로 엇그제 신발을 사준 것 같았는데 또 신발에 구멍이 났느냐면서 속상해하시면서 엄마가 이제 막내는 신발을 사주어도 얼마 못 가서 구멍을 내버리니 언니가 신던 신발을 신겨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 또 어느 날은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초겨울 날씨 추운데 길거리에 내 또래의 거지 소녀가 맨발로 웃도 허름하게 입고서 신발도 못 신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방에 있던 신발주머니에서 실내화를 꺼내 신고 엄마가 며칠 전에 사준 내 신발을 벗어 거지 소녀에게 신기고 아침에 엄마가 싸준 뜨끈뜨끈한 도시락을 거지 소녀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나의 행동에 엄마가 생각해 낸 일은 이제부터는 엄마가 바로 위의 언니에게 새 신발을 사서 신기고 언니의 신발이 어느 정도 낡아질 때면 그 신발을 나에게 물려주는 것이었다.

그때는 어릴 때라 그리고 외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 국민학교를 마칠 때까지 언니의

신발을 물려받았었는데 그렇게 신던 언니의 신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

조금 불편했던 것은 언니는 몸이 가늘고 나는 튼튼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신발도 약간은 볼이 작은 듯했으나 키 차이가 있어서 신발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었다.

그래도 가끔씩 예쁜 구두에 리본이 달린 신발이나 체크무늬의 운동화를 신은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았던 기억도 있었으나 그리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신발 대물림은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색깔의 신발을 신어야 하기에 나의 신발 대물림은 그렇게 끝을 보았다. 내가 나이가 되어서 첫 직장을 찾고 나서 월급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새로운 구두를 사는 일이었다.

나의 20대의 구두 수집 시작은 내가 40대 말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약간씩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강박증의 원인은 부족했던 점에 대한 충족감을 맛보기 위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는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상하게도 나에게 신발에 대한 집착이 보이고 눈에 띄는 새롭게 보이는 신발을 보면 꼭 사고 싶은 생각에 며칠 동안 그 신발이 늘 생각이 나고 기어코는 며칠 후 그 신발을 사다가 내 신발장에 고이 모셔 놓기도 했는데, 나는 그다지 뾰족한 구두나 하이힐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신발이 예뻐 보이면 예쁜 구두를 구매해 집으로 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 엄청 행복해지는 순간들이었다.

Shoes(신발) 1

직장에서 정장을 입거나 아래위 수트를 입어야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때로는 고객의 일로 법정이나 병원 또는 정신병동을 방문하는 일이 많으니 여기저기 빨리 이동력 있게 다니려면 운동화 스타일의 편한 낮은 구두가 나에게 편했다.

재미있는 일은 내가 신지도 않는 신발에 애착을 보이고 그 신발들을 한 켤레, 두 켤레 사다가 차고 안 거라지에 신발장을 크게 주문해서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 놓으며 가끔씩 그 신발들을 모두 내려 닦아 주고 씻어 주면서 그 신발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는 했었다. 40대 말까지 나의 신발에 대한 애착은 심할 정도로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가격이 비싸면 그 신발 가게를 자주 드나들면서 신발이 세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신발을 구입하고는 했다.

일 년에 한두 번씩 우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우리끼리 서로를 위하여 오픈 상담 시간(테라피 그룹)을 하는데 각 카운슬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는 시간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라지를 정리하다가 거라지 안을 살피던 중 신발장 안의 내 신발만 세어보니 70여 켤레의 신발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내가 왜 그러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다.

왜 나는 신지도 않는 신발을 이렇게 사다가 모셔 두는 걸까?

내가 구입한 신발 중에는 구두가 너무 오래되어서 유행이 훨씬 지나서 신기도 뭐 하고 또 는 굵이 높아서 지금은 신으려 해도 절대 사

양할 판이었다.

이날 오픈 상담 테라피 시간에 각자의 문제점이나 안고 있는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는 신발에 대한 강박증을 터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를 상대해 주던 정신과 테라피스트였던 우리 사무실의 고참 카일 박사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내가 어릴 적 늘 언니의 신발을 물려받으면서 그것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엄마가 하라니까 그대로 언니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불편함도 참고 엄마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 마음 한켠에 늘 새 신발에 대한 욕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 이후로 나는 테라피를 받으며 신발을 사고자 하는 생각이 천천히 없어지며 "그래! 괜챤야! 신발은 편하면 돼. 신발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라는 자기 암시를 하며 그 이후 7개월 후부터는 우리 집 거라지를 꽉 채우고 있는 신발들을 거의 모두 멕시코 선교를 가는 친구 부부에게 도네이션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친구 부부가 차로 가니 하나도 신지 않았던 70여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팔아서 선교금에 사용하라고 주었다.

그때에 내가 고이 모셔 두었던 신발들을 보내며 마치 소중한 것들을 보내는 느낌으로 "야하! 내가 아끼던 신발들을 시집보내는데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 호에 계속)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 IRA / Roth IRA / 401(K) *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 평생연금 - Annuity **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 - 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종교칼럼



저자 나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로 지금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6월은 같은 민족끼리 처참하게 전쟁을 했던 한국의 가장 아픈 달이다.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미국에서 주는 우윳가루를 밥솥에 써서 맛있게 살아먹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75년이 지난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세계에서 가난으로 멸시받던 나라의 인천공항이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한국 거리에도 외국인들이 넘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쉽고 치안이 좋고 자녀들 교육과 기르기가 안전하다고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이제 씨가 개막식에 DNA를 부르고 마지막에는 BTS가 노래로 장식을 한다니 기적이 일어났다. 세계 기독교에서 통성기도는 한국인의 기도라고 한다고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뜨거운 합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믿는다. 나도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한국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꾼의 나라로 한국을 쓰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때가 악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고 학교 운영도 어렵다고 한다. 교회도 젊은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힘없는 노인

들로 가득하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과 미국과 세계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소망이 있다. 마지막 때에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많고 진리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진리의 자녀들을 길러서 세계를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써주실 것을 믿는다.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감옥 속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북한군 포로 이강은과 백평강을 기억하고 기도한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대의 병사로 파병당했다가 거의 전멸하는데 이 두 군인은 20세, 27세로 부상을 당하고 자살할 시간도 없이 포로가 되어 우크라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러시아 군인들의 포로는 서로 교환하는데 이 포로들도 교환하면 우크라이나 포로는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지만 이들은 북한에 가서 자살하지 못한 죄로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탈북자 단체에서 이 두 포로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는 동영상(에스터기도운동/강동안 교수)을 보았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나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들은 비싼 국제 변호사가 중간에서 인권에 대해 변호를 해야 하고 구원해 와야 하는데 경비가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중국 감옥에서 윤희목 목사님과 같이 붙잡혀서 고생하던 탈북자가 미국과 유엔의 후원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고 그때에 고향선교회 초대 회장(나균용 목사)이 있던 타코마연합장로교회로 와서 처음으로 20세 처녀가 간증한 그 실화를 소설로 써서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아마존에서 요즘 발간하게 되었고 크리스천의 용서의 참사랑을 보여주는 소설과 2권을 아마존에서 10불씩에 살 수가 있다. "Testimony of Hyesung, a North Korean Defector(탈북자 혜성의 증언)"과 "RESET(망가진 삶이 다시 빛날 때)", "Grace H Nah(나은혜 지음)"으로 한국에서는 교보문고와 쿠팡 등에 한국어 제목으로 나왔고, 아마존에서는 영어 제목으로 나왔다. 내용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이다. 나는 이 책이 미국과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한국인들이 읽으면 한국을 알게 되고 곧 남북통일이 올 것인데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 들었다. 한국을, 북한의 탈북자들을 사랑하는 애국자들께서 후원을 했고 나도 뜻

을 같이해서 이 책이 세계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이 읽기를 소원하고 수익금은 모두 탈북자들을 위한 일에 쓰기를 결심한다. 북한을 사랑하는 독자가들이 많은 돈을 후원해 주어서 그 책을 저자의 가격으로 싸게 사고 10불씩 팔면 그 전액을 두 포로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비용으로 쓰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한 교회에서 100원씩만 팔아주면 1,000불은 그 교회 이름으로 한국에 두 포로를 구원하는 비용으로 보낼 것이다. 10교회만 있으면 1만 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떨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내 주제넘은 생각인가? 주님의 뜻인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어느 교회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공연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조롱받지도 않고 편한데 왜 쓸데없는 고민으로 괴로운가?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우크라이나 감옥 속에서 20세, 27세의 두 청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워싱턴 지역에서 1만 불을 이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물질로 선교해 주시면 그 이름을 하늘에 그리고 이곳 문서에도 기록해서 영원히 보관할 것이다.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gracehah@gmail.com



레이븐 경비회사/ 레이븐 공인탐정사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휴람칼럼

“단순 생리통인 줄 알았는데” …자궁근종, 4년 새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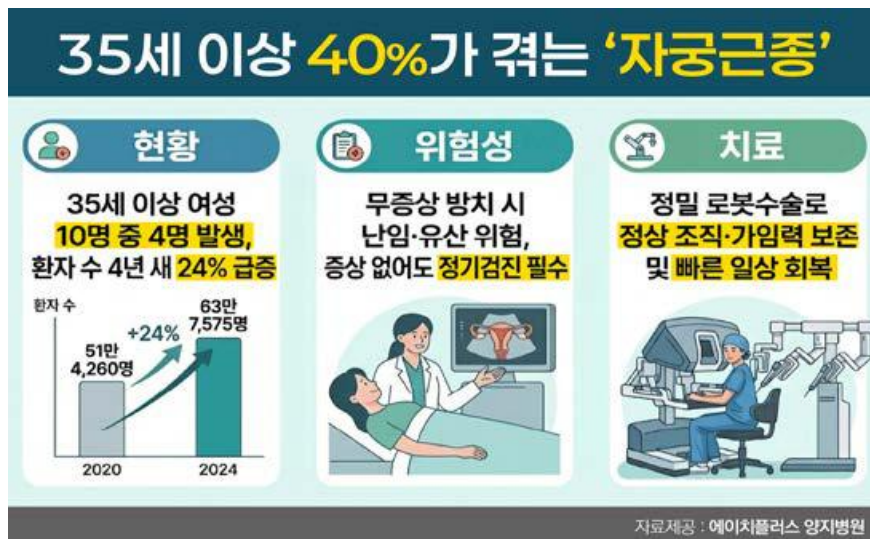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성이라면 알아야 할 자궁근종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산부인과 얀헤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약 25~35%에서 발견될 만큼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다.

30세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져, 35세 이상 여성 10명 중 4명이 겪을 정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자궁근종 환자 수는 2020년보다 24%나 늘었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단순 생리통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방치하여 크기가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나면 과다 출혈, 골반 통증은 물론 난임과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궁근종은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 폐경 이후에는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가임기에는 점차 커지거나 개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 근종이 커질수록 자궁 구조를 변형시키고 임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크기와 위치 변화를 확인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궁근종 환자의 절반 이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나타나는 증상은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 개수 등에 따라 다양하다. 월경 과다와 부정출혈, 골반 통증 또는 압박감, 심한 생리통, 빈비, 복부 팽만이 대표적이며, 자궁근종이 방광이나 장을 압박해 빈뇨나 배뇨 곤란, 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병 후에도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근종이 커지면 자궁 내강이 변형돼 수정란 착상이 어려워지고, 임신 중에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다발성 근종이나 거대 근종은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근종의 크기와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나타나거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근종이 과도하게 크거나 출혈과 통증 등이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자궁근종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근종 제거와 함께 자궁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다. 특히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에서는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고 병변만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인과 수술은 '최소침습'을 넘어 '정밀 보존'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그 중심에 있다.

로봇수술은 10배 확대된 3D 고해상도 확대 영상을 통해 미세한 혈관과 신경 구조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여 수술 후 가임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섬세하고 정교한 봉합도 로봇수술의 강점이다.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팔을 이용해 기존 복강경 수술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의 종양도 정교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절제 후 자궁 근육층을 치밀하게 봉합해 수술 후 자궁 과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거대 근종이나 다발성 근종 등 수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도 로봇수술은 안정적인 치료 방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 범위와 조직 손상이 줄어들어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2~3일 내 퇴원이 가능하며, 1주일 이내에 가벼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수술 시 의료기관 선택도 중요하다. 부인과 질환 수술 경험이 풍부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지, 진료과 간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확한 진단부터 체계적인 사후 관리, 환자별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여부도 살펴야 한다.

자궁근종 로봇수술은 정밀한 절제와 봉합이 가능해 가임력 보존과 합병증 감소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향후 임신 계획이 있어 자궁 보존이 절실하거나 거대 근종, 다발성 근종처럼 난이도 높은 수술이 필요하다면 로봇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산부인과 얀헤림 전문의

“단순 생리통인 줄 알았는데”…자궁근종, 4년 새 24% 증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에스더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료 - 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김용석 (Bruce Yongsuk Kim)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중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중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2017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시애틀코리아데일리



haninsosik.com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 · 광고접수

업소록 광고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2 가지 혜택

1 전자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MS Media Group에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는 전자신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2 웹사이트 광고비 50% 할인 혜택

MS Media Group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께 광고비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문의 206.779.5382 / E-mail: mediahankookweekly@gmail.com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